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큰 영광 올려 드리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2월 2일 (토) 제 1947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와중에도, 의로운 분노와 복음의 소망을 찾는 현지 기독교인들

최소 1,200명의 이스라엘인과 1,1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가운데, 단순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충격적인 사상자 수만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잔혹성도 세계를 분노하게 했다.

콘서트 축제에서 2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사망하고, 마을과 농장이 습격당하고 테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해안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중단되지 않으면 150명의 인질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도 받고 있다. 중단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사상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 36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다. 테러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는 군사 전략과 일관되게, 과거 25마일 길이의 고립된 가



334건의 테러 희생자가 있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집계 속에서도 민족적 분열을 넘어 지역 신자들 간에 균형을

수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 는 차원이 다른 일이며 사람

들은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기도문을 배포했고, 촛불을 켜기도 했다. '예수를 위한 유대인'은 국

테러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팔레스타인 복음주의자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충격과 슬픔을 나누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지구에서 발생한 총돌은 2014년 총돌로 인해 73명의 이스라엘인과 2,1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그동안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공포 가운데 살아왔다. 2005년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이후, Jewish Virtual Library에 의하면 이스라엘 영토에 발사된 로켓과 박격포는 적어도 20,648개이며

맞추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CT는 세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 세 명의 팔레스타인 복음주의자, 가자지구 밖에 있는 두 명의 가자 기독교인을 인터뷰했다.

#### 충격을 공유하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위한 유대인' 지부장 엘리 번바움은 "이러한 행위에서 드러난 증오와 악의

들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친구, 50명 이상의 전임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소통을 유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가 발생한 토요일, 번바움의 신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성

경에 있는 난민 가족과 군인들을 위한 물품을 모았다. 최소한 한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데이비드 라트너는 400명의 하마스 전사가 자신의 초소를 습격했을 때 동료 병사 5명의 목숨을 구해 지휘관으로부터 전쟁 영웅으로 불렸다. 목에 총을 맞았음에도 그는 이후 8시간 동안 전투를 계속했다.

(3면으로 계속)



### 나는 왜 소셜 미디어를 그만두었는가?

계정을 삭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슬플지, 외로울지, 아니면 사람들과 연락이 끊길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내가 과연 소셜 미디어를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자체도 가능할 수 없었다. 사실 직업 면에서 소셜 미디어는 내가 활용하는 자료가 온라인에서 뒤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또 온라인에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가? 상호 연결이 있고, 다양한 성경 해석을 접할 수 있으면 기쁨이 공유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등 아름다운 활동이 일어난다.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영구히 차단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여기에 솔직한 진실 하나가 있다. 소셜 미디어를 그만두고 40주가 흘렀는데 한 번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여름 방학, 생일, 그리고 이런저런 휴일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또 오랜 친

구가 올린 인생 전환 스토리도 보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사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다시 돌아갈 계획이나 욕구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소셜 미디어에 가입하기 이전의 내 삶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이다.

#### 왜 소셜 미디어를 시작했는가

나는 스물일곱 살 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홈스쿨링을 하는 젊은 엄마로서 소셜 미디어는 (말 그대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건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과 공유하고, 또 나와 같이 홈스쿨링 하는 다른 엄마들과 서로 기뻐하거나 위로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페이스북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한 성경 말씀(롬 12:15)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9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푸른초장 양수철 목사



13면 교회사회의 신순환 조용중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러빙워십 X 제이어스  
**YESHUA**  
yeshua  
여호와께 돌아가자  
HOSEA 6:1-3

**LA THE NOVO 극장**  
12/17 (일) 7PM  
800W OLYMPIC BLVD A335  
LOS ANGELES CA 90015  
티켓구입처 www.axs.com

**OC 애나하임 GROVE 극장**  
12/22, 23 (금, 토) 7PM  
2200 E KATELLA AVE  
ANAHEIM CA 92806  
티켓구입처 www.ticketmaster.com

티켓 \$50 / \$40 / \$30  
티켓 문의 (213) 357-1565  
주최 | 미주CBS방송 주관 | 러빙워십  
협력기관 | 연합뉴스TV,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신문, CGNTV, 우리방송, CTS AMERICA

발행인 칼럼

나목(裸木)과 질풍가도(疾風街道)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집 주위의 공원 안에 작지 않은 숲이 있다. 가끔 걷는 숲길인데 지난 며칠 새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벌써 벌거숭이가 되었다. 다른 동네 나무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르게 옷을 벗은 것 같아 안쓰러웠다. 봄부터 뽑내온 자태가 여름의 우거짐과 가을의 단풍으로 한껏 멋을 내더니 이제 추운 밤에 덮고 잘 것조차 하나도 없었다. 겨울 눈이 소복이 와서 그들을 감싸기까지는 단분간 그렇게 지내야 하리라. 저 벌거숭이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 서서 무엇을 생각할까. 옆의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보이지 않는 자기 뿌리와 외의 관계는 어떨까. 불현듯 궁금해졌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내 모습이 어때? 초라해 보이니? 너도 머잖아 이런 날이 온다.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단다. 이 겨울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야. 찬란한 봄을 준비하는 중이지. 잘 들어봐, 내 희망의 노래를" 나무는 바람을 선물로 삼고 멋지게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를 뒤로하고 남은 숲길을 걷는 나의 귓전에 나무는 소리를 냈다. "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벌거숭이가 될 겨울에도 나처럼 희망의 노래를 멋지게 부를 수 있겠니?"

최근에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들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의 OST 곡이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거야/ 너에게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거야/ 너에게 너에게" 응원가로도 많이 부른다는 "질풍가도"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다시 일어나 드넓은 대지로 달려가는 희망의 노래다. 모두에게 우습게 보였던 만화의 주인공도 좌절과 포기 대신 희망을 찬란히 노래하며 질풍같이 달려간다.

며칠 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지를 떠나시는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였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것도 남지 않았다. 목사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사모님뿐이었다. 아니다. 하나님도 계셨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탄식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분 다 아주 밝은 모습이셨다. 통화하면서 물어보니 앞서 밝게 보였을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 떠나보내고 계신 시간이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결코 애잔한 곡조가 아니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나목(裸木)은 곧 다가올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님 다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나는 추운 겨울날에 홀로 벌거숭이가 된다. 그 때서운 겨울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견딜 수 있을까. 소심한 나는 그런 날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다. 어떻게 겨울을 넘어 새로운 봄을 준비할 수 있을까. 겨울의 어떤 혹독한 날에도 나는 희망의 노래를 과연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12월, 겨울에 오신 예수님은 내게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 있으시다. 나목(裸木)의 노래보다 더 멋지게, 질풍가도(疾風街道)보다 더 찬란하게.

예수님이 동성애를 논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비전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결합임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은 예수님이 노인 학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것과 다소 유사하다.

그렇지만, 비슷하기는 한데,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노인 학대"라는 정확한 말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그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바리새인을 꾸짖었다(막 7:12-13).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출 20:12).

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노인 학대를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그 주제를 직접 언급하신 적이 없다.

동성애에 관해서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언약적 결혼에 대한 성경의 이상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 19:4-6).

분명히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비전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결합임을 확증하셨다. 그는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찬성하면서 그 특별한 맥락에서 성(sexuality)을 확증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한 구절을 권위 있게 언급했다.

더욱이 예수님은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부정적으로, 비난적으로 언급했다. 마태복음 15:19-2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마 15:19-20).

"더럽힌다"는 것은 부정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구약에서 이는 예배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 21:27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 21:27 표준새번역).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성적 부도덕, 도둑질, 거짓 증언 및 중상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하는 더러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통해 고백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적 부도덕"이라는 죄를 더럽게 하고 배제하는 것 중 하나로 언급하신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신약 및 기타 초기 기독교 문학의 그리스어-영어 사전(BDAG)에서는 대부분 성경에서 "성적 부도덕"으로 번역되는 '포르노네이아'라는 단어를 "불법적인 성교"와 관련해서 정의한다. 유대법은 레위기 18-20장에서 불법적인 성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긴 목록을 제공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남자는 다음과 같은 대상과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 1. 이웃의 아내(레 18:20)
2. 다른 남자(레 18:22)
3. 동물(레 18:23)
4. 장모(레 20:11)
5. 며느리(레 20:12)
6. 자매(레 20:17)

이들 중 누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포르노. 그러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성은 사람을 더럽히고 예배 공동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도록 만든다.

예수님이 동성애 문제를 긍정하셨거나 무관심하셨다고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구약의 비전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은 불가침의 계약으로 분명히 지지하셨으며, 불법적인 성행위가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 밖에 두는 일임을 분명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동성애"라는 단어뿐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리스어 포르네이아를 사용해서 유대법이 합법적인 성교 불법적인 성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에 따르면, 불법적인 성은 죄악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바치러 오셨으므로 모든 범법자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다.

거기에는 당신도 포함된다. 그리고 나도 들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상처받은 남자와 여자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잔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마 26:28).

불법적인 성관계는 죄이다. 도둑질은 죄이다.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용서받고 영원히 씻겨질 수 있다.

할렐루야!

by Paul Carter, TGC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서전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김요섭 목사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와중에도...

(1면에서 계속)

번바움은 자녀들에게 중요의 욕망에 강인하게 맞서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수심 없이 정의를 추구하라고 도전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자 지구와 하마스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에게 진정한 관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그는 물었다. “우리가 현재 처한 매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출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팔레스타인의 신학 교육자 그레이스 알-조프비도 그의 빛을 찾고 있다. “교회는 찾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잔학 행위는 끔찍합니다.” 그녀의 베들레헴에 있는 집 바로 인근 건너 쪽에 포격된 로켓포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가족들은 사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식료품점으로 달려가 식료품을 구입했다. 봉쇄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녀는 교회가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관공업의 손실은 경제를 더욱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분쟁을 종결시켜 달라는 뜨거운 기도였다. “주님, 모든 악을 가져가서 유리처럼 부수고 갈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주세요” 알-조프비는 간구했다. “언젠가 곧 주님의 길이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측 신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허위 진술”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 거리를 공유하다

가자 침례교회의 전임 목사 한나 마사드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시편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시편 123:3).

현자인 최초의 목사로 30년간 사역한 마사드는 2007년 교회에 대한 공격과 기독교 저점 소속 청년 사역자의 납치 및 살해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는 폭력 사태를 직접 경험했고 이스라엘의 공포를 잘 알고 있다. 이제 미국 시민이 된 그는 매주 Zoom을 통해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 교인들과 교류하는 것 외에도 1년에 세 번 가자지구를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전반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방문은 2주 전이었

며, 이스라엘로부터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에 대한 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국경 당국은 미국-팔레스타인 이중국적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리고를 통과하는 데 걸린 대기 시간은 이번에는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마사드는 “우리는 일반적인 존엄성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소지한 문서 때문에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그는 계속 말한다. 2007년부터 이어진 봉쇄로 가자지구 인구의 50%가 실업자이고 65%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으며, 230만 명 중 1만 7,000명만이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검문소에서의 대우도 훨씬 더 가혹하다. 나머지는 끔찍 못 한다. “그곳은 거대한 감옥입니다”라고 마사드는 말했다. “그리고 보통 방문할 때마다 전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좌절감은 누적되고 있다; 마사드의 아버지는 한때 팔레스타인 국가를 희망했지만, 마사드는 이제 자신이 60세가 되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인들은 어느 쪽의 폭력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존엄성이 아닙니다”라고 마사드는 말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십니다.”

집이 파괴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료 가자 거주민인 칼릴 사예그의 가족 아파트가 이스라엘 로켓에 피격 당했다. 그들은 현재 가자지구의 세 교회 중 한 곳으로 피신해 학교나 다른 시설에 대피한 25만 명의 주민들처럼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주의 지대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집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다고 가정하였지만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시다.” 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예그는 아고라 이니셔티브에 소속되어 다른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임한 민주주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쉽게 무시되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오, 부족주의, 복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예그는 말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 피비린내 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점령의 구조적 불

를 종식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 분노를 공유하다

유대인 기독교인 변호사인 제이미 코웬은 전쟁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전직 유대인 테러리스트가 포함된 극우 연합을 이끌고 총리로 복귀한 이후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통해 국가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네타냐후는 자신을 아랍 세계의 평화 조성자로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더 많은 불법 정착촌을 승인함으로써 국내의 소외된 팔레스타인 커뮤니티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코웬은 동영상 설명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국가에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는 네타냐후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하마스의 빠른 패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북쪽에 있으며 헤즈볼라의 수천 개의 정밀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가장 먼 도시까지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코웬은 이 전쟁이 끝나면 정부가 사임하고 이 행정부의 정보 및 군사 대비에 대한 “연정난”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까지 무고한 유대인 가족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복음주의자들이 자원하여 돕기로 했다. 이스라엘 복음주의 교회협의회는 난민 중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협의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아랍 팔레스타인 기독교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대회 의장인 보트리스 만수르가 나사렛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안전한 북부 지역에서 피난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었던 그는 전쟁으로 인해 초점을 바꾸기 전에 교회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대부분을 기도도 진행했으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말을 인용하며 신자들을 격려했다: 저를 당신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내면의 어려운 감정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 방향으로 영향력을 내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만수르는 말한다. “그러나 분쟁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이 없는 한 폭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웬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께서 현재 지도자들을 교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15면으로 계속)

### 시론

## 선택과 집중 - 미니멀리스트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평생 시계 만드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어느 시계와는 다른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침은 동(銅), 분침은 은(銀), 초침은 금(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만들고, 가장 가늘고 작은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지.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만사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만큼 1초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피은 글)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그 꿈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더 말할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동안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땀땀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지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해 늘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되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지녔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역사와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르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렇듯 못한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중학교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게으름도 악이구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 그 이후 지금까지 “게으르지 말자, 이것은 악이다, 최선을 다하여 살자!”고 다짐하며 살아왔고 결과에 대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과 차이는 “충성과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 충성된 자의 특징은 “작은 일”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노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인생의 그릇과 지경이 넓어져 가는 ‘성서적 축복’입니다. 복은 주님이 명하시어 줍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복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금으로 만든 시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큰 꿈을 꾸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만한 욕심”을 자주 때때로 내려 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큰 꿈은 작은 습관, 분명한 의지 등이 선행될 때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라 피네는 말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고. 우리는 항상 내가 바쁘고 내가 기쁜 일보다 주님 때문에 바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초점 맞추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룩한 열망과 부담이 있는 삶”을 꿈 꾸시며 그 일들을 위해 초점을 금점으로 여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자락에 땀땀하게 자유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ZARA의 회장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단 한번도 개인용 짐수건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50조 기부 선언을 했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의외로 이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이들은 좋은 스포츠카나 명품 옷과 팬트 하우스 등등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애초에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기에 가장 소중한 그것에 집중”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예수따라 이리저리 물려만 다니는 ‘무리, 팬이 아니라(NOT A FAN), 예수를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Here & Now)에서 재현(Re-presentation)하는 예수의 “제자”(The Beloved Disciple)된 삶, 가장 행복한 부르심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와져야 하며, 무엇을 더욱더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나? 더 늦기 전에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기회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다짐이요 새해를 맞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성숙해져 가는 “예수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pastor.eun@gmail.com

###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마약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킨 오리건 주는 안녕할까요?

AP 통신은 미 전역에서는 오리건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마약 비범죄화 및 가벼운 처벌 법안이 마침내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고 지난 일요일에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펜타닐의 확산과 함께 어린이를 포함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공공 약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약으로 죽은 아들, 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부모들이 상상이 되는지요?

2020년 오리건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110은 여러 가지 마약을 비범죄화했습니다.

2020년, 마약을 비범죄화하는 세력들의 숨사탕 같은 이유는 "대마초 판매에 따른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약물 중독의 '회복'에 투자하자"라는 것이었지만, 예상대로 대실패의 결과물들이 수도룩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리건 주민들은 "회복"할 길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여러 약한 마약들을 더 쉽게 접할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손아귀 안에까지 그런 마약들이 들어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리건 주의 마약 사용에 대한 처벌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가벼워졌고 마약 거래자들에게는 그 법은 그저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1g 미만의 헤로인을 소지한 시민은 티켓과 최대 100불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라 봤자, 요즘 주차 위반 parking ticket 한 장 값에 불과하죠.

그리고 AP 통신의 법안설명에 의하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은 24시간 핫라인에 전화해 45일 이내에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벌금면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마약중독검사를 받으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AP에 따르면 2021년에 "마약 소지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 중 1%만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2020년 당시 Measure 110을 통과시켰었던 일부 민주당 주 의원들 중 몇몇은 마약 비범죄화 법안(Measure 110) 철회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한 포틀랜드



는 이 "마약 비범죄화"라는 약한 정책의 폭풍을 정통으로 맞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2020년 6월, 미네아폴리스 경찰이 체포 중이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포틀랜드시는 현미연방정부에 응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포틀랜드는 200일 가까이 경찰 권력 남용에 대한 시위가 이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폭력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포틀랜드 시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폭력 범죄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포틀랜드는 경찰 재정 지원을 원상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인력을 증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해튼 연구소의 찰스 페인 리먼은 9월에 "인구 1,000명당 경찰관이 1.26명에 불과한 포틀랜드 경찰국(PPB)은 인구 대비 경찰 인력 비율에서 전국 50개 대도시 중 4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PPB는 우선순위가 높은 전화에 응답하는 데 최대 30분이 걸리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갖춘 경찰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틀랜드에서는 경찰관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폭력 범죄와 경찰 부족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포틀랜드 경찰국의 자전거 순찰대 소속인 데이비드 배어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시내의 모든 범죄 형태는 펜타닐로 이어져 있다. 도난 차량이든, 강도/절도든, 조직적인 소매 절도든, shoplifting 이든, 거의 항상 펜타닐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펜타닐을 단속하고 그 흐름을 막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마약들이 비범죄화되고 가벼운 벌칙으로 끝나게 하는 Measure 마약들을 합법화하려는 약의 세력들이 "약물(마약) 남용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도시 지도자들은 건강도 나빠지고 많은 범죄의 발생도 일어나는 진퇴양난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틀랜드는 서부 해안의 길거리 마약 시장을 대표하는 모델 도시가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중국 공산주의 독재자인 시진핑이 방문한다고 지지분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약간 청소하고 레드 카펫을 깔았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의 문제는 마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과 '악'의 구분을 없애고 '도덕'의 중요성을 내팽개친 반기독교적인 정책 이데올로기를 쫓는 세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원리 원칙에서 동떨어진 부패된 정책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정책들이 우리 같은 모든 시민, 가정, 교회, 신앙,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미친다는 것에 주목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이것이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인줄 압니다. 세상 종말이 오고 주의 재림이 오려면 결정적인 징조가 있을 텐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로미타에서 Kwon

## 예수재림의 결정적 징조들

A: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약 4년에 걸쳐 우한 폐렴 즉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알래스카 인구만 큼 죽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가능성도 큼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말론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중에 종말론적인 현상을 마 24:7절에서 말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를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마 24: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2004년에 스위스 로잔 선교대회에서 세계 종족이 24,000여 종족인데 현재 미 전도종족이 6,000개라고하며 지상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세계를 정복하려는 운동이 2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 이슬람화를 꿈꾸는 이슬람과 전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주의 재림이 오려면 모든 민족에게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전도종족들은 약 4,000개 남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다니 선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주님이 오시므로 휴거한다고 해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 성경이 예언한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역사 세계에 먼저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후 2: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난 역사 세계속에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나타났지만 마지막의 불법의 사람, The Man,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경배를 자신이 받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할 것입니다.

셋째는 유대 민족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니 이방세계에서 너도 나도 예수믿겠다며 많이 결신하고 교회들이 가는 데마다 세워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잘 안믿고 가는데 마다 따라오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 9장 1절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질문하자 아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향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롬 11:25-26절입니다. "형제들이 너희가 스스로 지해있다 함을 면키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아니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구원받는 총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의 영적 눈이 가리워 완악하게 되어 믿지 않는 것인데 이방인의 총만수가 차면 마지막으로 유대민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룩하바 베셀 아도나이(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이 마지막 미전도 종족입니다. Last Frontier인 셈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b>다민족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대민족화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b>벤틀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지,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b>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b>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감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타코마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다르게 시도하자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은 전쟁의 명수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종족,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용한 장군인 만큼 성격도 괴팍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부하조차 죽여버리는 혈기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집으로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 화가는 한쪽 눈이 감긴 모습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그렸던 것이지만 완성된 그림을 본 한

니발 장군은 대노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병신꼴로 그렸느냐? 장군은 화가를 끌어내 목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화가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 댓가로 죽고 맙니다. 장군은 또 다른 화가를 불러서 다시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앞선 화가가 곧이곧대로 그림을 그렸다가 화를 당한 것을 아는 이 화가는 한니발 초상을 두 눈이 성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니발 장군은 대노합니다. 내 눈이 어찌 둘이나, 하나밖에 없는 내 눈이 너에게 돌로

보인단 말이나? 이것은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다” 그리고 그도 역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앞의 두 사건을 들은 이 화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니발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는 생명을 부지했을 뿐 아니라 초상화를 잘 그렸다고 상도 받았습니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니발의 옆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 변한것 아무것도 없지만, 지혜를 사용함으로 상황도 모면하고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돌려서 보거나 뒤집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르게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진행하거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 최소 3명중 한명은 왼손잡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만 해도 어른이 되어서 왼손잡이는 열명중 한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왼손잡이가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왼손잡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려는 온갖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에 왼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양손잡이가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하게 성공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넘어서 오



손을 왼손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는 자연스럽게 양손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은 뇌가 더 발달하고 신체적인 조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 뇌, 왼쪽 뇌가 같이 수고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는것입니다. 왼손잡이로서 위축 되셨나요?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훨씬 더 많은것을 이룰 수 있

습니다. 양손잡이 중에 헤리트루먼, 자동차 왕이었던 제럴드 포드, 모차르트 미케란젤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개성을 인정하고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매일 소심하게 왜 나는 왼손잡이가 되었는가 탄식하면 살았다면 과연 그런 탁월한 일을 해냈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美민주 상원 과반 뺄간들... "경합지 이겨도 불안"

내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이 상원의석 과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경합지역을 모두 이겨야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27일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상원의원 불출마 결정으로 2024년 상원 선거구도가 민주당에게 더욱 복잡해졌다"며 "민주당은 공화당 주자가 더 유력한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오하이오 주에서 의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내년 11월 5일 대선 때 전체 100곳 상원 의석 중 34곳을 새로 뽑는다. 새로 선거를 진행하는 상원 의석은 민주당 20곳, 공화당은 11곳, 민주당 성향 무소속 3곳이다.

선거예측 사이트인 270투원은 이중 몬태나, 오하이오, 애리조나 3곳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소속의 존 테스터, 세리드 브라운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의 지역구다. 나머지 31곳은 민주당 우위(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19곳, 공화당 우위 12곳이다. 경합지역 3곳을 모두 이겨야 현재의 50석을 유지할 수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 부통령 의석수를 합해 과반을 지킬 수 있다.

더 힐은 몬태나 지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16% 포인트 앞선 곳이라서 민주당이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네이비시(Navy SEAL·해군특수전부대) 출신 팀 슈히 예비 후보와 친트럼프계로 꼽히는 맷 로젠데일 하원의원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 전쟁 비용만 70조원... 이스라엘, 경제 전망치도 하향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총 70조원 규모라는 추산이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국무원 내각의 사법부 개혁 강행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던 때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지며 이스라

엘 경제는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은행이 추산한 하마스와의 전쟁 총비용은 1980억 셰켈(530억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9조1220억원으로, 국방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액수다.

이스라엘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달 3.0%에서 2.3%로 내린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10월 3.0%에서 2.8%로 하향한 뒤 이번에 또 2.0%로 내렸다.

아미르 야른 중앙은행 총재는 "하마스 테러 단체와의 전쟁 기간과 경제적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중앙은행은 전쟁이 주로 남부 전선에 집중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행은 이날 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4.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인구 912만명의 이스라엘은 예비군 40만명, 현역병 18만명 규모로 예비군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번 전쟁에 동원된 예비군 규모는 총 30만명. 대다수가 생업을 포기하고 총을 든 이들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재정지출을 300억 셰켈 늘리는 2023년 수정 재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지출액 대부분은 부채로 충당된다.

### 풀려난 인질들 "지하 공간서 콩 몇 개 먹으며 50일 버텼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임시 휴전 마지막 날인 27일 가까스로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무부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휴전을 이틀간 연장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마스 측도 인질 10명을 추가 석방할 때마다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는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서 지난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된 휴전의 종료 시점은 28일 오전 7시에서 이틀 뒤인 30일 오전 7시로 조정됐다. 이 기간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최소 20명을 더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을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나흘간 하마스가 석방한 인질은 총 69명으로 이스라엘인 50명(이중 국적자 포함)과 외국인 19명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인질의 3배수인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줬다.

석방된 인질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로 끌려갔던 이들은 질식할 것 같은 지하 공간에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채 7주를 버텼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의자 3개를 붙여 만든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문을 두드려 하마스 대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4일 풀려난 아디나 모세(72)는 "인질로 잡혀 있는 끔찍한 상황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5층에서 50일을 보낸 탓에 석방됐을 때 햇빛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한다. 그의 조카 예말 누리는 "인질들은 쌀과 강통에 든 콩 몇 개만 먹었는데 복통 때문에 그것조차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며 "사위장 같은 제대로 된 시설은 당연히 없었다. 그들은 7주 동안 씻지 못했다"고 전했다.

딸 케렌, 손자 오하드와 함께 풀려난 루티 먼더(78)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닭고기와 밥, 각종 통조림과 치즈를 먹었고 아이들은 과자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지자 메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람에서 주식으로 먹는 피타 빵으로만 수일을 버텼다고 한다. 먼더는 간혀 있던 방을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을 때우려고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여자 아이들 중 일부는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역류 중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힌 인질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26일 특별 석방된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로니 크리보이(25)는 구금돼 있던 건물에 폭격을 당한 틈을 타 탈출해 나흘간 홀로 숨어 지냈다. 국경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발각돼 다시 하마스의 구금 시설로 보내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협상과 무관하게 크리보이를 석방한 것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 흑인 따로, 백인 따로...美 공립학교들의 실형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을 인종별로 분리해 가르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흑인·라틴계 학생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조성해 학습 효과를 높이려는 실험이다.



윌스트리트저널은 26일 "미국 전역의 교육구는 표준화시험에서 백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흑인·라틴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방법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22학년도 대학과목선이수제(AP) 시험에서 흑인과 라틴계 응시자는 3점 이상 득점자가 각각 38%, 51%에 그친 반면 백인 응시자는 80%가 3점 이상을 받았다. 대입자격시험(SAT) 등 다른 표준화시험에서도 인종별로 학업 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친화 수업(affinity classes)'으로 명명된 인종별 분리 수업이 새롭게 고안됐다. 미니애폴리스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주요 도시 공립학교에서 흑인·라틴계 학생을 백인 학생과 분리해 반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 교사도 유색인종으로 배치된다. 단일 인종 학생으로 학급을 구성하는 건 그동안 미국 공교육에서 사용되지 않던 전략이다. 헌법과 법률의 인종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평등을 위해 '선택과목'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택할 권리를 쥐게 해준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교육계의 해석이 나오면서 기류가 반전됐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 마을인 에번스턴은 인종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각한 지역이다. 에번스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모니크 파슨스는 "흑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곳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고심 끝에 흑인·라틴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수학 수업과 작문 세미나를 시작했다.

새 방식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출석률과 성적이 점차 오르고 있다고 현지 교육 당국은 밝혔다. 에번스턴 교육감 마커스 캠벨은 "우리 목표는 인종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면적 6.5배' ... 이동 중인 초거대 빙산, 어디로?

세계 최대 빙산이 3년 전 남극에서 떨어진 뒤 최근 수개월간 이동 속도를 높인 것으로 관측됐다. 빙산의 면적은 서울의 6배, 두께는 여의도 63빌딩 높이의 1.6배다. 전문가들은 이 빙산의 이동을 기후변화에 의한 것보다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다.



27일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남극의 일부였던 세계 최대 빙산 'A23a'는 1986년 남극 웨들해 필치너론 빙봉에서 떨어진 뒤 해저에 고정돼 침처럼 자리를 잡았다가 2020년 분리됐다. 이 빙산이 본격적으로 이동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남극조사대(BAS)는 지난 24일 SNS 플랫폼 엑스(옛 트위터)에 "수십년간 해저에 고정됐던 빙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A23a의 이동 소식을 알렸다. A23a의 면적은 3900km로, 서울(605km)의 약 6.45배다. 두께는 약 400m로 여의도 63빌딩(약 250m)의 1.6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555m)의 72%에 이른다. 롯데월드타워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 웬만한 고층건물의 높이보다 두꺼운 빙산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BAS는 A23a의 남극 분리과 이동을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보다 종종 벌어지는 자연현상으로 분석했다. BAS의 앤드루 플레밍 박사는 "일부 동료들에게 빙하의 이동을 바다의 수온 변화에 따른 것인지 물었지만 '그저 때가 됐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A23a는 남반구의 다른 대륙에 도달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23a에 가장 가까운 대륙은 남미다. 아르헨티나 남쪽 영구령 사우스조지아섬 인근에 도달하면 물개, 펭귄, 새들의 먹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다만 빙산에서 녹은 미네랄이 해저 유기생물의 먹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캐서린 워커 박사는 BBC에 "빙산은 생명을 주는 존재로, 생물학적 활동의 기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81. 김봉기 (1875-)

김봉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 후 상주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29세가 되던 1904년 1월 23일에 캘리포니아 하와이 노동 이민자로 호놀룰루에 입항했다. 그는 오아후 섬의 예와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노동했다. 그는 1904년 7월 31일에 백인 목사 조지 L. 피어슨에게서 학습을 받고, 예와 한인 감리교회 학습 교인이 되었다. 피어슨 목사는 1903년에 안정수와 우병일과 함께 호놀룰루에 한인 복음회를 창설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의 감리사였다. 김봉기가 세례를 받던 1904년에 예와 한인 감리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56명이었다. 1905년에 예와 한인감리교회에 등록된 한인은 135명이었으나 예배에 참석한 한인은 200명이었으므로 당시 12개 처의 한인 감리교회 중 가장 큰 교세를 지녔다. 당시 하와이에서 감리교회에 등록된 한인수는 451명이었고, 평균적으로 예배에 출석한 수는 605명이었다.

협회에서 천신만고로 열심과 열성을 다하여 비둘기가 깃을 모으는 듯하며, 배짱이 배를 짜듯 하여 공립회관을 상항에 설립하니 다만 한인의 집은 이 집뿐이라. 본국과 하와이로서 건너가는 동포들을 편리하도록 인도하며 학업과 뇌동에 뜻을 따라 주선하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독립을 회복할 기조가 확실히 귀 회에 있다고 하였더니 불행히 일조에 남는 것이 없이 다소 화가 되었다하니 한인사회에 큰 큰 분이라.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단식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라 하다. 그러나 귀 회에서 이같이 폐를 보고 위급한 중에 더욱이 열심히 하여 연보를 모집하여 위급한 자를 구제하며, 신문을 계속 출간하며, 교부를 폐지 아니하시니 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을 보건대 어찌 아니하여 공립회관이 다시 될 터이오. 나라를 회복할 열성이 배나 더 생길 줄을 믿나이다. 본 회는 태평양을 준차 있으므로 즉시 가서 위문하지 못하고, 다만 편지로 위문하오니 죄송하오이다. 본 회에서 동족상보할 마음은 간절하나 재정이 넉넉지 못하므로 연금 27원을 수합하여 보내오며, 또한 이곳에 거주하는 김봉기와 김흥렬 양 씨는 회원이 아니라 본 회에 방청하다가 각각 일원씩을 출연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함께 보내오니 많은 것으로 아시고 보용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조지 L. 피어슨 목사

김봉기는 1908년 1월에 처음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하여 파송을 받았다. 그는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에서 개최한 미국 북감리교 제3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그는 박화T와 함께 하와이 섬의 올나 한인 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이 교회와 힐로 한인 감리교회에 최진태가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았

고, 전도사는 파송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진태 목사가 없을 때는 김봉기가 올나 한인 감리교회를 목회하였다. 김봉기가 파송을 받을 때의 올나 한인 감리교회의 교세는 그해 1월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한 교회 현황 보고서에 볼 수 있다. 학습 교인이 42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24명이었으며, 유아 세례교인이 2명이었고, 그해 세례를 받은 성인이 27명이었다. 주일학교는 두 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14명이었으며, 학생은 130명이었는데 평균 90명이 출석했다.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시가가 250달러였다. 지난 해 동안 해외선교를 위해 1달러를 헌금했고, 내지 선교를 위하여 5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어린이 학생 보조금으로 1달러를 헌금하였고, 지역 교육을 위하여 1달러를 헌금하였으며 미국 성서 공회에 1달러를 헌금하였고, 부인 내지 선교회에 2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제네럴 콘퍼런스 비용으로 1달러를 헌금하였다. 교육을 위하여 총 7달러를 헌금했다.

1909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에서 제4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있었다. 이때 보고한 교회 교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김봉기의 사역이 1년 전에 비교해 대체로 저조했다. 학습 교인이 6명이 줄어 36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3명이 줄어 11명이었으나, 유아세례교인은 지난 해와 같이 2명이었다. 그해 세례를 받은 성인이 11명으로 지난 해 보다 16명이 줄었다. 주일학교는 지난 해와 같이 두 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11명으로 3명이 줄었으며, 학생은 40명으로 무려 90명이 줄었는데 평균 35명이 출석했다.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해와 같이 250달러에 해당했다. 1년 전과 같이 해외선교를 위해 1달러를 헌금했고, 내지 선교는 지난해 보다 1달러가 많은 6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지난해에 하지 않았던 주일학교 선교비로 3달러를 헌금하였다. 교육을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 학생 보조금과 지역 교육을 위한 헌금을 하지 않았으나, 교회에 2달러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하여 1달러를 헌금하였다. 미국 성서 공회에 1달러를 헌금하였고, 부인 내지 선교회에 2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제네럴 콘퍼런스 비용은 하지 않았다. 교육을 위하여 총 16달러를 헌금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하와이섬에 몇 한인교회가 설립되었음은 하와이 선교연회로서는 큰 성과였다. 하갈나우, 코나, 파할라, 파파할라에 한인 감리교회가 설립되어 하와이 섬에 8곳에 한인 감리교회가 들어섰다.

1909년 3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김봉기는 정인S와 함께 가와이 섬의 막가웰리 한인 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김이제가 막가웰리 한인 감리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김가하 한인 감리교회도

말았다. 그러므로 그가 막가웰리로 오지 못할 때는 김봉기가 정인S와 함께 한인 감리교회를 섬겼다.

김봉기가 1909년 3월에 막가웰리 한인 감리교회로 파송되었을 때 본 교회의 교세는 비교적 큰 편이었다. 학습 교인이 119명, 세례 교인이 86명, 유아 세례교인이 8명, 그해 세례를 받은 성인이 22명이었다. 주일학교는 네 곳에 있었는데 19명의 직원과 교사가 등록된 115명의 학생 중 평균 100명을 가르쳤다. 이 지역에 예배당이 3곳에 있었으며 총 시가가 700달러였다. 선교를 위하여 해외선교 헌금 1달러, 해외 주일학교 헌금 1달러, 내지 선교 헌금 4달러 그리고 내지 주일학교 헌금 4달러를 헌금했다. 교육을 위하여 일반 교육 헌금 1달러와 어린이 기금 3달러를 헌금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교회에 1달러, 주일학교 헌금으로 2달러를 헌금했다. 그리고 흑인 보조회에 2달러, 미국 성서 공회에 2달러, 부인 내지선교회에 4달러를 헌금했다. 훈련 기금으로 27달러와 다른 기금으로 45달러를 헌금하여 총 72달러를 헌금하였다.

191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놀룰루에 있는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에서 제5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이해 감독은 에드윈 홀트 후즈 목사였고, 감리사는 J.W. 와드만 목사였다. 이 연회에서 보고된 막가웰리 한인 감리교회의 교세를 작년과 비교하면 대체로 좋았다. 학습 교인이 50명으로 69명이 줄었고, 세례 교인이 103명으로 17명이 늘었으며, 유아 세례교인이 5명으로 3명이 줄었고, 그해 세례를 받은 성인이 15명으로 7명이 줄었다. 주일학교는 한 곳이 늘어 다섯 곳에 있었는데 직원과 교사는 5명이 준 14명이었고, 등록된 학생은 18명이 많아 133명이었으며 평균 103명이 출석했다. 주일학교에서 15명이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엠티스 고등부 연맹이 조직되어 44명이 등록하였던 것은 쾌거였다. 1년 전과 같이 이 지역에 예배당이 3곳에 있었으며 총 시가가 700달러였다. 선교를 위하여 작년 보다 29달러가 많은 30달러를 해외선교 헌금으로 드렸다. 교육을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일반 교육 헌금으로 1달러를 드렸으나 어린이 기금은 드리지 못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교회에 1달러를 헌금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달리 흑인 보조회에 헌금하지 못했고, 미국 성서회에 1달러가 적은 1달러만 드렸으며, 부인선교회에도 드리지 못했다. 훈련 기금으로 6달러가 많은 33달러와 지역 교육 관심에 25달러를 헌금하여 총 58달러를 헌금하였다.

1910년 3월에 김봉기는 2년 전에 파송을 받았던 하와이 섬의 올나 한인 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고, 박화B도 같은 지역에 권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흥한식이 올나 한인 감리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는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

하갈나우 한인 감리교회와 힐로 한인 감리교회까지 파송을 받아 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달에 보고된 올나 한인 감리교회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교인이 43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42명이었으며, 유아세례 교인이 1명이었고, 그해 2명이 성인 세례를 받았다. 주일학교는 두 곳에 있었으며 6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고, 등록된 학생은 66명이었지만 평균 출석은 53명이었고, 13명이 회심을 하였다. 엠티스 고등부 연맹이 23명이 등록하였고, 예배당 건물 1동이 있었으며 시가는 250달러였다. 해외 선교비로 18달러를 헌금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1달러를 헌금했으며, 흑인 보조비로 1달러를 헌금했고, 부인 내지선교회에 1달러를 헌금했다. 총 훈련비는 21달러였다.

1911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놀룰루에서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에서 제6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있었다. 제6회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올나 한인 감리교회 교세를 1년 전의 교세와 비교하면 작년보다 약간 저조했음을 알게 된다. 학습 교인이 10명이 적은 33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2명이 적은 40명이었으며, 유아세례 교인이 1명으로 같았고, 그해 8명이 더 많은 10명이 성인 세례를 받았다. 주일학교는 두 곳에 있었으며 1명이 더 많은 7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고, 등록된 학생은 8명이 적은 58명이었다. 엠티스 고등부 연맹에 4명이 많은 27명이 등록하였고, 작년과 같이 예배당 건물 1동이 있었으며 시가는 250달러였으며 건물 수리비로 22달러를 지출했다. 작년과 같이 내지 선교비로 18달러를 헌금했고, 주일학교를 위하여 1달러를 헌금했으며, 흑인 보조비로 1달러를 헌금하여 총 22달러를 상납했다.

제6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봉기를 하와이섬 올나 한인 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작년에 파송되었던 박화B를 같은 섬의 파팔노아 한인 감리교회로 파송하였다. 흥한식이 작년에 이어 올나 한인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하갈나우 한인 감리교회와 힐로 한인 감리교회에 파송하였다. 그래서 흥한식이 없을 때는 김봉기가 작년과 같이 목회하게 되었다.

1912년 이후 1915년까지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의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김봉기의 사역을 볼 수 없다. 그리고 1916년 이후 그의 이름은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서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8, www.nscsusa.org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714) 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Anaheim,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권영자,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세계선교회</b>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sa.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b>실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99일 Clubhouse 3 room (1부)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주일예배: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단체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626) 962-96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Tel: (714) 446-6202, www.groce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주: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영일/영남):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하늘사망교회</b>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침경이 일어나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6장 올바른 기도의 방법 (2)

2)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친히 주신 다른 이름이나 칭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은 자신이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심어 주신다(고후 6:18).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복음적인 예배와 모든 우리 기도의 궁극적 대상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의미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잘 표현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우리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며 만족스러운 일일 것인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느끼며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개념 아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본질적인 것은 없다. 이것이 없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움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거룩한 즐거움이 없다면 삶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영적인 즐거움이나 만족감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3) 우리에게 거룩한 곳, 곧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참 마음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22).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서로

반대 되는 것이며, 전자는 후자에 의해서만 제거된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함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있다.

(1)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담대함(헬, 파레시아)'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상태나 조건, 원인에 따라 각각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속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위압감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기도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와 담대함의 영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께 자녀로서 참되고 진실하게 기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언제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는 유혹과 영적인 침체와 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다양하게 방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뿌리와 원리로서,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라고 하셨다. 이것은 항상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2)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기쁨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숨기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기쁨도, 자유도, 참된 기도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자신들을 기뻐하신다는 거룩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에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아 2:14)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든지 신자들을 받아 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들어 있다.

죄인들은 본성상,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고 근거 없는 생각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저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께 가능할까? 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성령은 우리로 언약의 약속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을 깨닫게 하며 우리로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4. 성령은 기도할 때 신자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이며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

이것은 복음 시대에 기도의 근본적인 방향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을 통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서, 믿음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11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아름다운 길동무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다. 올해 하반기는 학교 일로 마음 쓸 일이 많아서 맑은 가을 하늘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 힘든 상황 덕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서 감사하기는 했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 중에 친구 사모님이 가을 여행을 가는데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다. 장거리를 운전해서 가는 곳은 여행사 패키지도 드물고 여자 혼자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사모님이 호의를 베풀었다. 올 봄에 이미 사모님 부부의 여행에 동행했던지라 또 선뜻 따라 나서기가 망설여졌다.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사모님은 꼼꼼하게 계획한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각이 되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옷가지만 챙겨서 뉴욕시 코로 5박 6일의 여행을 떠났다. 긴 운전 시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고 여러 시절의 동요도 부르며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학교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목적지의 하나였던 White Sands National Park은 눈처럼 하얀 석회가루로 이루어진 광활한 둔덕들이 장관이었다. 석회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물결 무늬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세계에 대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 지역이 아폴로를 비롯한 우주선의 훈련 장소 이었기에 생각지 못한 보너스로 우주선 박물관도 가볼 수 있었다. 우주선의 설계, 달의 정복을 위한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하신 지능의 대단함도 생각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칼사바드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도 손길 볼 수 있었다. 별 기대 없이 들린 시골 마을에서 발견한 절경한 휴양지에서 강줄기를 타고 군데군데 모여 있는 새들과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힐링 되었다. 며칠 동안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자상한 아버지 되심이 감사로 다가왔다. 집으로 떠나오는 날 아침, 흠뻑 젖은 깃털이 하얗게 쌓이는 산 길을 뒤로 하고 가을 소풍을 마쳤다.

여행을 위해 경로를 계획하고 숙소를 정하느라 애쓴 목사님, 아이스 박스 한가득 음식을 해서 신고 오신 사모님의 사랑의 손길로 누린 귀한 휴식은 지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이번 여행 동안 어느 사모님이 카톡을 보낼 때 자주 쓰시는 "아름다운 길동무"라는 표현을 생각했다. 아름다운 자연도, 지나가는 길에 들린 커피 샵 주인의 따뜻한 환대도 감사했지만 외로운 인생 길을 걸어가 갈 때 마음을 함께 하는 믿음의 길동무가 곁에 있음이 가장 귀한 감사로 다가왔다. "동무"의 사전적 의미는 "늘 친하게 어울리거나 함께 노는 사람"이다. 그러나 동무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는 친구로 대체되었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복에서 그 단어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정치적인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 집에 친구를 동무라 칭한 것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길동무"라는 표현을 보았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으로 시작하는 "동무생각"이라는 옛 가곡과 "어깨동무" "길동무"라는 표현 정도다. 이미 귀에 익숙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길 친구" 라는 말 보다는 "길동무"가 훨씬 더 정감이 있다. 우리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길동무이다. 그 어떤 도움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우리의 길동무이다. 물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길동무이다. 우리 앞서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동행하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동료 길동무가 필요하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 길에 지치고 힘들 때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길을 걸어 갈, 마음이 통하는 길동무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나도 외로운 영혼에게 귀한 길동무가 되고 싶다. 친구가 험한 산을 넘고 풍량이 이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때에 함께 삶을 나누며 격려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릴 때 다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나도 인해 길동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새사람교회', etc.,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때론 모르고 지내는 것도 은혜

교회 댐에 트레일러를 연결 해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 중 2 차선에서 80마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며 가는데 1차선에서 경찰차로부터 스피커로 음성인 들려옵니다. 차를 3 차선이나 4차선으로 바꾸어서 가라는 경고 음성입니다. 경찰은 경고만 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차를 3차선으로 변경하여 가는데 차를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다시 2차선으로 바꾸어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5분쯤 2차선으로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이면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차를 가변 차선으로 세우라는 경고 음성입니다. 속으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마음먹고 경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 옆으로 와서 운전 면허증, 보험증,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왜 차를 세웠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동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간

상업 운전이 되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55마일이며, 4차선의 경우 3차선이나 4차선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2차선에서 80마일로 달렸기 때문에 교통 위반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교통 법규를 잘 몰랐으며 1차선으로만 운전하지 않으면 관청은 거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어디를 가는 중이었느냐?”고 묻길래 “교회 동산에 심은 나무에 물을 주러 가는 중이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교통 위반 티켓을 발급하지 않고 경고만 줄 테니 앞으로는 절대 1차선이나 2차선이 아닌 맨 오른쪽 두 차선에서만 운전하며 다니라고 하면서 가도 된다 고 하며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한 날에 5분 간격으로 경찰들로부터 두 번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낼 것에 대해서 설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 입술에 감사의 찬양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 댐에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2차선에서 80마일로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경찰을 만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며 운전하고 가던 중 문득 이전보다는 웬지 모르게 운전이 신경 쓰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로 부터 단단히 제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3차선이나 4차선으로만 운전하며 다니라는 경계의 음성 때문입니다. 교통 법규를 모른 채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

통법을 알고 난후부터는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조심하게 되고, 법대로 운전하려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 모르고 지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때론 듣지 못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자신은 빼놓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게 되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 지내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르고 지내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편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을 맞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gmail.com



월드미션대학교와 한동대학교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드미션대 한동대와 MOU체결

학생 및 교수 교류, 학술 및 교육 정보 교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10월 27일 한국의 한동대학교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신선목 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과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 박혜

경 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 신혜인 국제교류협력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학생 및 교수 교류, 학술 및 교육 정보 교환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대 최도성 총장은 “온라인 교육에 강점을 가진 월드미

션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한동대가 진행하는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 울릉도 프로젝트 등 보다 실질적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기독 인재 양성에 함께 힘을쓰기를 바란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학교는 개교(1995년) 이래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해서 남 주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인재, 이웃과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의 인재, 확고한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용감히 실천하고 도전하는 인재 양육하기 위해 글로벌(Global), 하이테크(High Tech), 하이터치(High Touch)형 인재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는 뛰어난 한국의 기독교 대학이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9회 남가주찬양합창제에서 참석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사진왼쪽아래 원안은 이날 시리아 난민사역을 위해 모금된 현금과 후원금을 전현미 회장이 김종규 목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39회 남가주찬양 합창제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을 위해 사용 될 것”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제39회 남가주찬양합창제가 27일(주일) 오후 6시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현미 회장은 “이번 합창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이라는 주제로 난민선교찬양제로 준비했

다”며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과 지진,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난민들을 보면서 저희 협회에서 작은 정성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양하는 단원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 기도로 시작된 찬양제는 라흠여성콰이어(지휘 강민석), 오렌지카운티 코리안메스터코랄(지휘 강미영), 경신코랄(지휘 장진영), 감사한인교회 할렐루야성가대(지휘 류정삼), 그랜드페스티벌콰이어(지휘 강민석), 이대남가주동문합창단(지휘 김중숙), 보치엘레스티 콰이어(지휘 글로리아 안),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남성찬양대(지휘 한규진)가 출연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소프라노 이영주 가 찬조 출연하여 이날 찬양제를 빛내주었다. 찬양제는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은혜’를 함께 부른 뒤 김종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모금된 현금과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박준호 기자)

나는 왜 소셜 미디어를...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소셜 미디어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훌륭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아이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게 어색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중단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이리저리 떠드는 것도 내 자랑 같아서 점점 줄어났다(잠 27:2). 게다가 어떤 이슈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쓰지 않았다(잠 17:28).

에밀리 젠슨이 쓴 통찰력 있는 Social Sanity in an Insta World를 읽으면서였다. 그녀는 내가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일찍이 느꼈던 여러 증상을 하나씩 나열했다. 남은 시간을 때우려고 소셜 미디어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 긴 독서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낮은 수준의 불안감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게 결정적인 충격을 준 것은 통찰력 있고 경건한 2세대 여자아이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을 읽매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것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 친구 로라의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 며칠 내내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거기에 조금도 매여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통해서도 그녀의 사역을 아름답고 축복하고 계신다.

하지만 내 경우는 달랐다. 아무리 관대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로그인하려고 해도, 다른 글들을 읽을 때면 조금씩이라도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분노나 좌절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은 수준의 불안감이 없어졌다. 더 편안하고 더 잘 잠는 사람이 되었다. 선택을 내릴 때도 훨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무언가가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점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더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팟캐스트 Gospelbound에서 내가 Collin Hansen과 나는 이야기를 권한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소셜 미디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어쩌면 그 덕에 나는 트위터에서 벌어졌을 수백 번의 싸움과 협담을 피할 수 있었다.



수정교회 어린이들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슈박스를 준비했다

뉴욕수정교회 사랑의 슈박스 모집 16년 동안 총 45,204박스

뉴욕 퀸즈지역 한인교회들과 단체들 기부행렬 이어져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는 11월 13일부터 20일 동안 사랑의 슈박스(Operation Christmas Child)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 행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계 100여 개의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해 기쁨과 희망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2008년부터 16년째 참여해 온 뉴욕수정교회는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의 대표 모금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슈박스는 1970년 설립된 구제 단체인 '사마리아인 퍼스(Samaritan's Purse)'가 1993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빈 신발상자에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물건들로 채워 넣고 이 단체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 수정교회는 개인별, 목장별, 전도회별로 박스 수집 기간 자원봉사 및 슈박스 도네이션에도 참여

했다. 사랑의 슈박스 기간 동안 뉴욕 퀸즈지역 한인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과 단체들에서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240상자가 더 모여져 총 4,449상자가 됐다. 뉴욕수정교회가 지금까지 모은 슈박스 총 누적개수는 45,204박스다. 이렇게 모아진 슈박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센터에 전달되어 세계 각 지역에 보내진다.

황영송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전쟁과 가난, 그리고 질병 등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슈박스를 통해 한 아이가 변화되고, 그 아이를 통해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리: 김재상 기자)

9개월 전, 소셜 미디어에 관한 팟캐스트를 녹음하던 중에 나는 소셜 미디어를 그만뒀다.

그 시점에 이르자 나는 사실상 잠수를 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도파민의 흥분 호르몬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소셜 미디어를 그만둘 수 없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행여라도 내가 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왜 그만두었는가

나를 조사한 결과, 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사람의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반대하는 내부 충동을 극복하는 데에는 어떤 자국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의 첫 번째 작은 시작은

은 것을 읽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셜 미디어를 떠나는 데에는 겸손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리즘에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마다 느끼는 도파민이 주는 기대감을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내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성공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 앨런(David Allen)의 표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일종의 무한 고리이다.

나라고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마침내 아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셜

소셜 미디어를 그만뒀을 때, 나는 결코 그 이전보다 더 진절하고,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거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까지.

왜 나는 소셜 미디어를 여전히 하지 않는가?

에밀리가 옳았다. 소셜 미디어는 그녀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가 손을 떼고 난 이후 나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효과적으로 내 삶을 조절하면서 집과 직장에서 눈에 띄게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제 나는 지루할 없이 성경과 다른 책들을 읽을 수 있다.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사랑한다. 사라지지 않던 낮

그리고 내 진짜 생활과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인스타그램 생활을 비교하는 일도 내 삶에서 사라졌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물론, 분명히 몇 가지는 놓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 즉 순전한 기쁨, 향상된 집중력, 주님의 인도에 대한 민감성이 주는 장점은 분명하다. 소셜 미디어 사용 여부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저울의 추는 하지 않는 쪽으로 더욱더 기울고 있다. 내게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통 미국인이 하루에 소셜 미디어에서 쓰는 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신도 내가 왜 이것을 계속해야 하지? 이게 그럴 가치가 있나? 질문을 던져야 한다.

by Sarah Eekhoff Zylstra, TGC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음악회

뉴욕교협 청소년센터는 2023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12월 3일(주일) 오후 5시 뉴욕기독교교회(담임 고성민 목사)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79-1313

### 국제장애인선교회, '우리서로 잡은 손' 행사

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노기송 목사)는 12월 7일(목) 오전 10시 유니온프라자캐어 센터에서 '우리서로 잡은 손' 행사를 개최한다.

▲ 문의: 718-353-3791

###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 4회 정기연주회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회장 이진아 목사)는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제 4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 문의: 718-406-7577

###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감사예배

지역교회부흥선교회(허윤준 목사)는 12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2023년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917-750-8714

###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전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2월 14일(목) 본 교회에서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 지역과 이웃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꾸니에 담아 전한다.

▲ 문의: 718-886-4040

### 뉴욕장로교회, '아말과 동방박사들' 오페라 공연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12월 15일(금) 저녁 7시, 16(토) 오후 5시 본당에서 본교회의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준비한 '아말과 동방박사들' 오페라 공연을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및 선교사 재파송예배 후 사진촬영 했다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및 선교사 재파송예배

### 1대, 2대, 3대 목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영생장로교회(백운영 목사)는 정승환 담임목사 위임예배 및 백운영 목사 선교사 재파송 예배를 11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 교회에서 드렸다.

백운영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이병은 목사(동부시찰장, 한인산일장로교회),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설교 김성국 목사(KAPC 총회장, 퀸즈장로교회), 특별찬양 글로리아싱어즈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국牧사는 설교에 앞서 "교회창립 42주년에 1대 2대 3대 목사가 건강하게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이 자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전한 뒤, '주님의 질문! 나의 대답은?' (사 6:8)'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과 주의 질문이 있다. 오늘 '영생장로교회~ 필라지역에, 동부지역에, 미국 땅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하지 않겠나'는 질문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살려주시시오'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기 바란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임국장 김성철 목사(예수장로교회) 인도로 시작된 위임식은 위임목사와 교인 서약이 있는 후 위임기도, 공포가 있었으며 이용걸 목사 권면, 이성흠 목사 축사, 정승환 목사 답사로 이어졌다. 이어 홍승민 목사(웨스트민스터신대원한인동문회)가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여성성장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용걸 목사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정목사에게 "자원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처럼 교인을 사랑하고 모세처럼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 주고 에스라처럼 말씀에 전념하고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으며

"교인은 동역자로서 목사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같이 아파하고 매를 맞겠다든 뜨거운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교인들에게 권면했다.

이성흠 목사는 "정 목사를 생각하면 성실함과 열정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걸어온 두 가지를 계속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에 힘 있게 주의 백성을 목양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축사했다.

정승환 목사는 "20대는 퀸즈장로교회, 30대는 퀸즈한인교회를 섬겼다"고 말하며 "이제는 제 삶을 이 곳(영생장로교회)에 바치고 싶다. 예수님이하신 대로, 앞선 목사님들이하신 대로 사랑하며 섬기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답사를 대신했다.

3부로 진행된 선교사 재파송 예배는 정승환 목사의 인도로 박성일 목사, 양종길 목사, 김대영 목사, 조성윤 목사가 축사했고 선교사 파송기도 후 1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백운영 목사에게 선교사 서약을 받고 파송 받은 배선호 대표(GP 선교회)가 백운영 목사에게 축사 및 파송장을 수여했다. 이어 필라지역 목회자 특송, 당회서기 선물증정, 주재은 목사 재파송패 증정, 박상익 이사장이 감사장을 증정했으며 모든 순서는 정승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1대 목사님께 파송 받고 3대 목사님께 파송 받은 선교사 백운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미주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영생장로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며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저희 부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확신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답사했다. (홍현숙 기자)

## 제 29회 청소년센터(AYC) 정기총회

### "사람의 결심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결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청소년센터는 제29회 정기총회를 11월 17일(화) 오후 2시 뉴욕 함께하는 교회(담임 박시훈 목사)에서 개최했다.

최호섭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황영송 목사(이사, 뉴욕수정교회), 설교 최호섭 목사, 축도 김홍석 목사(이사, 뉴욕늘기쁘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섭 목사는 마가복음 14:27-31 말씀으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인간적 의지로 세 번 부인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의지한 자로 변화되었다. 인간적인 결심은 어떤 환경이라는 변수 속에서 변한다. 우리의 굳은 결심은 인간적인 결심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2부 회무는 정인국 장로(이사장) 사회, 개회기도 송윤섭 장로, 전회의록 낭독이 있은 후 이준범 장로의 감사보고, 김준현

목사(사무총장)의 회계보고 및 프로그램 보고로 진행됐다.

청소년센터는 지난 회기에 △ 청소년 음악회 △ 뉴욕가정상담소와 공동으로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주제: 폭력에 노출된 가정 어떻게 도울 것인가?) △ 정성진 강 위크샵 △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 학원사역 학생들과 비전 트립 등을 개최했다. 또한 뉴욕 프로그램 미디어사역과 학원사역, 섬머스쿨 사역을 진행했다.

임원선거는 대표 최호섭 목사 와 이사장 정인국 장로가 연임하기로 했다. 신안건으로 청소년센터의 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교협과 이야기하고 철저히 명시화시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모든 순서는 허신국 목사(목양장로교회)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청소년센터는 12월 3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기독교교회(시무 고성민 목사)에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홍현숙 기자)

##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 52회 정기총회

### 회장 정관호 목사, 부회장 한준희 목사

뉴욕지구한인목사회(김홍석 목사)는 제 52회 정기총회가 11월 21일(화) 오전 10시 뉴욕 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개최됐다.

김홍석 목사는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해 주심에 한 회기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뉴욕 교계는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모두의 과제라며 뉴욕 교계가 본래의 목적에 이르게 될 줄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관호 목사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이상훈 목사의 찬양인도와 기도 현영갑 목사(출판위원장), 성경봉독 이문범 목사, 특송 성음크로마하프찬양 선교단, 설교 김정호 목사(후리싱제일교회), 헌금기도 박황우 목사(노인복지위원장), 헌금특주 윤태석 집사, 축도 김명옥 목사(직전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딤후 4:21)' 라는 제목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충전되지 않으면 겨울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목회를 사냥사냥이라고 말한다. 목회자의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 한다"고 말하며 "목사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못남 우리의 죄를 다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김홍석 의장의 사회로 시작한 총회는 허정민 목사의 개회기도, 업무 보고 후 임원선출을 통해 회장 정관호 목사, 부회장 한준희 목사를 추대하고 감사는 김요셉 목사, 주효식 목사, 이송진 목사를 추대했다. 박태규 목사(교협회장)는 총회 회장과 부회장을 박수로 추대하기를 권하고 "교협과 목사회가 은혜와 화합으로 가기를 원하며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은혜롭게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정관호 목사는 "목사회다운 목사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며 "베드로전서 5장 3절 '양무리의 분이 되라'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하기 힘쓰자"며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했다. 한준희 목사는 "존경받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는다"며 "회장을 잘 보필하며 훌륭한 목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한준희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목사회 신입회원은 다음과 같다. 구자범(뉴욕광염교회), 김정호(후리싱제일교회), 김천수(뉴욕방주교회), 케빈리(이진선(예수기쁨교회), 박차숙, 송금희, 양은식, 이상훈(뉴욕만나교회), 조문자 목사 등이다. (홍현숙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 52회 정기총회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동부개혁신학교 찬양 축제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동부개혁신학교 제37회 장학금을 위한 찬양축제

###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동부개혁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37회 장학금을 위한 찬양 축제가 11월 15일(수)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축제는 인도 학장 김성국 목사, 기도 학생회 부회장 오세웅 학우, 성경 봉독 부회장 김복순 학우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이사야 49:10~13)"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학생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왜 신학생이 되었으며 이 힘든 과정을 감당하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흔들고, 감동을 주려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 외에는 진정한 웃음도 감동도 있을 수 없다. 예수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동부개혁신학교 합창단은 윤원상 교수의 지휘와 송

소영 집사의 반주로 '오 자비로운 주여'와 '평화의 기도' 등 두 곡을 찬양했으며 게스트로 퀸즈장로교회 주빌리 앙상블(지휘 윤원상 교수)은 "내 평생 가는 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를 연주했다. 소프라노 강혜영과 바리톤 양영택이 독창으로 "있으니",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각각 찬양했고, 듀엣으로 함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를 찬양했다.

학장 정기태 목사는 광고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열심히 찬양제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찬양 축제를 후원한 퀸즈장로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와 동문, 학장 및 교수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학교를 위한 후원과 기도를 부탁했다. 모든 순서는 학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제 50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마치고 사진촬영 했다

## 뉴욕교협 제 50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 "미자립교회 자립과 침체된 교회 회복위에 힘쓸 것"

제 50회기 뉴욕교협 회장·부회장 및 임·실행위원, 38대 이사장·감사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7일(금) 오전 10시 프라미스 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을 맞이하며 "희년으로 자유하라!"(레 25:10)를 표어로 출발한 제 50회기 회장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는 "예수님만이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실 것"을 강조하며 "세계할렐루야 대회를 격상시켜 세계 중심도시 뉴욕(Citi Field)에서 가장 귀한 전도사역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자립교회와 자립하고 침체된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부회장 이상중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대표기도 유상열 목사(헌법위원회), 성경봉독 조동현 장로(평신도부회장), 특송 권사합창단, 말씀 이풍삼 목사(교단협력위원회), 헌금송(특주)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헌금기도 이조엔 권사(이사장), 축도 김원기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행 20: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에도 다시 일어나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바울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같다"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가슴에 예수 은혜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향기는 뉴욕에 퍼져서 죽어

가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하기 바란다. 또한 50회기가 마친 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교협 임원이 되라"고 당부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양은식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이임사 이준성 목사(직전회장), 교협기인계, 취임인사 박태규 목사(신임회장)와 이조엔 권사(신임이사장), 축사양독(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축사양상(양향자국회의원, 나선군 미기총회장), 축사 김동권 목사(뉴저지교협회장), 김홍석 목사(목사회회장), 뉴욕총영사, 뉴욕한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격려사는 이만호 목사(증경회장단 의장)가 맡았으며 축송 "축복하노라" 김영환 전도사, 이희정 집사가 찬양했다. 이어 임원 부회장 이상중 목사, 총무 양은식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전성환 장로, 협동총무(수석) 송일권 목사를 소개했고, 위촉장은 최홍경 변호사에게 대표성 목사, 유승래 목사, 김홍배 목사, 조동현 장로에게 수여했다. 이어 김진화 목사(서기)의 광고 후 안찬의 목사(증경회장) 폐회 및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교협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이조엔 권사, 부이사장 김명순 권사, 감사 김재룡목사·김일태·권케타린 목사로 구성했다.

(홍현숙 기자)

# 2025 아프리카 선교대회 설명회

## 아프리카 무슬림화 막아... 선교사 파송과 교회 설립

2025 아프리카 선교대회 설명회가 22일(수) 오전 11시에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아프리카 선교교회 대표인 강신정 목사(논산한빛교회, 한국침례신대총동창회 회장)가 미국을 방문해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열리게 됐다.

강신정 목사는 “선교를 위해 기도 하던 중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품게 하셨다”며 “아프리카 선교에는 비용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에 20대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파송만 해서 안되며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 문화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을 한 뒤 사역현장에 투입될 것이며 아프리카에 3천개의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를 무작정 세우는 것이 아닌 이미 교회가 있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물상황이 많이 열악한 곳부터 새 건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건축에 5000달러(약 700만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선교회의 거점은 탄자니아다. 그곳에 3만평 대지를 받게 되어 간초대와 교회를 짓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메인스타디움에서 10만명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대회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아프리카 선교회는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를 무슬림화 하기 위해 밀려오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탄자니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우간다와 남아공까지 선교를 통해 복음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186개 현지 교회를 세웠으며 앞으로 3000개의 교회를 탄자니아(마피아섬, 잔지바르),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우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신정 목사는 이번 미주 방문을 통해 주님의 영광교회, 남가주세누리교회, 엘바인침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바 있다. 본 선교회 후원은 아프리카선교회/농협 351-1075-6039-13 ▲문의: (213)559-797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교회들의 평신도 대역 행사 모습(사진 왼쪽에는 미주평안교회 추수감사절 예배후 교인단체사진, 사진 오른쪽에는 베델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사진 오른쪽 아래는 평강교회 단체사진, 사진 왼쪽 아래는 남가주주둔한교회 세계시모습)

# 남가주 각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드려

##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축제의 장”

추수감사주일이었다던 지난 19일(주일)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일제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먼저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는 제1부 주일예배는 모든 성인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으며, 제3부 예배에서는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는 전 교인이 참석한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날 원로목사인 송정명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랴(골 3:15-17)’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정명 목사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 신명기 10장13절을 통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다”고 강조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했다. 이어 임승진 목사가 등단하여 성찬식을 거행하였고, 또한 참석할 청소년들을 위하여 버니홍 목사(EM목사)가 영어로 설교하였으며 이 행사를 마친 후에 전 교인이 식당에서 터키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친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우스 파사데나에 위치한 평강교회(송금관 목사)에서도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평강교회는 이날 찬양 발표회를 개최, 먼저 다양한 추수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했다. 이어서 송금관 목사는 ‘감사와 공의(미 6: 6-8)’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일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최고의 추수는 우리의 Income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가 된 것이 최고의 감사이자, 으뜸이 되는 감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한다”고 말씀을 마쳤다. 장학금 전달식과 터키와 햄 등의 추

수감사절 만찬이 교회 뜰에서 베풀어졌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말씀과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는 치유 기적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추수감사 복음전도 치유집회가 비전센터에서 꿈이 있는 교회를 담임 하고 세계치유사역자 전문 훈련원 원장인 최종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는 19일(주일) 각 예배시간에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 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4시에는 추수감사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각 목장별로 준비한 발표회를 통해 3개 팀을 시상하여 매칭 된 선교지를 후원하기로 했다. ▲홀리톤장로교회(황인철 목사)는 추수감사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가졌으며 오후 1시15분에는 선교찬양제를 가졌다. 강기철 집사 사회로 시작된 선교찬양제는 정경애 집사와 데보라 김 집사의 오토하프연주, 농악교회 찬양팀, 그리고 1선교회부터 6선교회까지 각 선교회의 회원들이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2부예배시간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별 순서가 있었으며 3부예배시간에 세례식이 있었다. 이 외에도 남가주주둔한교회(김현인 목사), 엘바인침례교회(권태산 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토렌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도 세례식(침례식)을 가졌으며 기쁨우리교회(김경진 목사),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목사),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오렌지한인교회(피세원 목사), 인랜드교회(안환 목사)는 성찬식을 거행했다.

(박준호 기자)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찬양의 밤에서 송병주 담임 목사(사진앞줄 가운데)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선한청지기교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찬양의 밤

##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되기를...”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찬양의 밤이 18일(토)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송병주 목사는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우리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메시아, 2부 감사와 은혜의 찬양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메시아는 선한청지기교회 채홍석 지휘자의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지휘에 맞춰 은혜롭게 들려졌다. 그리고 소프라노 이영주, 엘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가 곡 중 솔로를 맡

았으며 관객들에게 더 큰 은혜를 안겨주었다. 2부 감사와 은혜의 찬양 시간은 엘토 심현정이 연합찬양대와 함께 ‘주의 은혜’를 불렀으며 소프라노 이영주가 ‘믿음의 고백’, 테너 백동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으며 소프라노 이영주가 연합찬양대와 본교회 청년부와 함께 ‘Way Maker’를 불렀다. 이날 모든 순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송병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지저스웨이브 미국 남서부 기도모임

지저스웨이브(대표 김성욱) 미국 남서부 기도모임이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홀리턴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800-0972

## 미주 장신대 ‘퍼플러더십 세미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12월 1일(금) 오후 4시(서부시간), 줌을 통해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퍼플러더십 세미나’를 ‘글로벌코칭리더십협회(GCLA)’와 협력하여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크리스천 리더십에 집중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사는 GCLA의 국제대표인 피터 정 코치

▲ 문의: (562)926-1023 (Ext.300)

## 동부지역성탄절 찬양제

LA동부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동부지역성탄절 찬양제가 12월 3일(주일) 오후 5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626)965-9191

##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부흥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2023 갈보리 하반기 부흥회가 12월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부흥회 강사는 김관성 목사(남은담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2월1일(금) 오전 5시30분, 저녁 8시, 2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3일(주일) 1-3부예배

▲ 문의: (858)278-3210

## OC제일장로교회 메시아 연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를 12월2일(토) 오후 6시에 갖는다. 이번 메시아 연주는 소프라노 이지은, 엘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 바리톤 장상근이 출연한다.

▲ 문의: (714)899-9191

## OC한인교회 마음의 감동과 영혼의 치유가 있는 찬양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마음의 감동과 영혼의 치유가 있는 찬양제를 12월 3일(주일) 오후 5시에 갖는다. 이번 찬양제는 소프라노 이보은, 김도희, 바리톤 방크리스가 출연한다.

▲ 문의: (714)893-1652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찬양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OC제일장로교회 찬양페스티벌

오렌지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찬양페스티벌을 17일(금) 오후 7시30분에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한 조영석 목사는 “찬양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품게 된 것은 찬양사역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종규 목사는 “감사의 계절에 우리들의 입술이 감사와 마음의 목상이 풍성해지게 되기 바

란다.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이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석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찬양페스티벌은 허지애, 조영석, 랜디 김, 박수진, 섹스폰연주자 켈빈박 이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페스티벌은 김종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요 우리를 받아 주시는 수단인요, 원인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야 할 계속 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신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법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라고 명확히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n)로 말미암는 칭의(justification)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롬 5:2).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구할 때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아들의 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다.

younsuklee@hotmail.com



2025 아프리카 선교대회 설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미가정상담소 감사후원의 밤 겸 장학금 전달식에서 영감 의원이 상담소 이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있다

# 한미가정상담소 후원의 밤 및 장학금 전달식

## 링 쉐어 이사, 한미가정상담소에 10만 달러 후원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잔 최)는 지난 18일(토) 오후 2시30분 어바인에 있는 OC 뮤직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후원의 밤’을 겸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수잔 최 이사장은 “한미가정상담소를 후원해주고 함께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OC뮤직 스튜디오의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수잔 최 대표가 인사말 했으며 한미가정상담소 현 이사이자 이날 행사의 주 연사인 링 쉐어씨가 기조연설을 했다. 쉐어씨는 “지난 1986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할 때 손님들이 에그를 몇 개 팔아야 차를 살 수 있었겠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내 비즈니스가 작게 시작해 성공한 것처럼 가정상담소도 앞으

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후 링 쉐어씨는 남편 찰리 쉐어씨와 함께 한미가정상담소 후원금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어 유동숙 가정상담소 소장은 그동안 상담소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다. 가정상담소 이사이기도 한 영감 연방하원의원이 이날 ‘감사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사들과 상담소 봉사자들에게 공로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한미가정상담소는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가졌는데 레이첼 배, 최성운, 올리비아 한, 장성은, 제이 주, 정아림, 김한나, 김현섭, 김지우, 리사 김, 김유나, 저스틴 김, 조셉 문, 리디아 명, 에단 박, 심민성, 신혜린, 손하늘, 송윤주, 크리스찬 우 등 2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자세한 것은 (714)873-5688, (714)892-991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도 넓은 청소년 마약 문제... 시민단체 100곳 '뭉쳤다'

#### 20세 미만 마약사범, 9월 기준 988명, 3개월 만에 2021년 2배

10~20대 마약 범죄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기독교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100여 곳이 손을 맞잡았다. 다음 세대의 마약 예방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마약 치료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정책 제안, 전문인 양성, 대국민 캠페인 등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류 유통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 230명이었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2만 명을 넘는 건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처음이다. 젊은 층의 적발 추이는 충격적이다. 20세 미만 마약사범은 지난 9월 현재 988명으로 2년 전(450명)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20대 역시 같은 기간 5077명에서 5817명으로 약 15% 늘었다.

"20년 넘게 마약 중독을 끊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세대를 마약의 수렁에서 끌어 올리고자 우리는 모였습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마약치유 재활시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인 신용원 목사는 28일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야 만다. 다음세대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눈물로 함께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약물중독마약퇴치국민운동본부(이사장 손광호 목사)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 등 101개 시민단체 및 기관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서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회(한마총·상임대표 손광호 신용원 이계성 천영훈)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다. 일선 현장에서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천영훈 상임대표는 "주중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서른 살 미만의 젊은이"라면서 "주중 외래환자는 포화상태이고 저녁시간과 휴일에도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정 기관도 한마총과 협력을 약속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영식 소장은 "마약사범들은 검거 됐을 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며 "재소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마총 홍보대사로 나선 가수 강성훈은 "한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케이팝이 세계를 주도하듯 한국을 마약 청정국의 세계표준으로 만들자"며 청중들과 '마약에 단 한 번이라도 손대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네버 원스(Never Once)"를 세 차례 외쳤다.

한국교회를 향한 역할도 요청됐다. 신용원 목사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만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완전히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며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 '기도로 의기투합' 고신대 회복위해 동문들이 나섰다

#### 고신대학교목사동문회·고신대학교후원회, 지난 1월부터 기도 운동 전개

재정난과 신입생 모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신대의 회복을 위해 동문 목회자들이 팔을 걷어붙이며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도 운동이 본격화된 건 지난 1월이었다. 이병수 전 고신대 총장이 동문 목회자들에게 재정적 어려움 등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를 들은 고신대학교목사동문회

(회장 변성규 목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자"며 기도 운동을 하기로 의기투합을 한 것이다. 동문회와 고신대학교후원회(회장 장상환 장로)가 공동주최한 '고신대를 위한 코람데오 기도회'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부산 고신대에서 열한 차례 열렸다. 동문회장

변성규 목사는 "고신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며 "기도회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하는 이들이 늘면서 기도 열기도 뜨거워졌다. 동문회뿐 아니라 부산 등 경남 지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여전도회연합회, 고신대 교직원, 지역교회와 노회 임원 등 매달 60여명이 참여한다.

'심사일반'의 기적도 진행 중이다. 동문회는 고신대가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기획한 '1만원 1만명(후원자) 모집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운동을 전개해 1700명(1700만원)의 후원자를 확보했다. 올해의 마지막 기도회는 다음 달 11일 한해를 결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송년 음악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교회와 정부, 저출산 문제 극복에 마음 모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 진행

한국교회가 정부와 손잡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를 문제 정부와 종교단체가

협력해 돌파하자는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앞서 이영훈 목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공동 대응과 국민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이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책에 상호 협력·지원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5년 전부터 출산을 장려하며 저출산 문제 대책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기독교 전체가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이번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돼 힘을 모아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 가운데 심각한 것 중 하나"라며 "정부도 큰 노력을 하지만 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준다면 큰 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이 동시에 충족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교회가 생명 출산과 양육을 돕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비전선언문도 발표했다.



### "이웃과 함께는 대학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

#### 백석대·백석문화대, '사랑나눔 대축제' ... 20년째 이어져

천안의 한 대학이 20년째 겨울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백석대(총장 장종현)와 백석문화대(총장 송기신) 사회봉사센터는 23일 교내 백석생활관 2층 콘퍼런스룸에서 '2023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를 진행했다.

20년 전인 2003년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김장이 아닌 생

활필수품을 담은 상자로 기부 품목을 변경,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올해는 유학 생활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재학생이 상자를 만들었다. 천안 시에서 생산된 참살, 참살현미, 찰보리쌀, 찰흑미, 수수쌀, 기장쌀, 서리태 등 7가지 잡곡으로 400상자를 채웠다. 상자에는 사랑과 감사를 담은 카드도 써넣었다.

예년에는 라면, 쌀 등 생필품



### 추위 잇는 망치질... 미자립교회에 희망을 선물하다

#### 한국해비타트 울진 건축봉사 현장

"딱 딱 딱". 최저 기온 영하 4도를 기록하며 갑작스럽게 추워진 25일, 경북 울진 북면 신화리의 한 공터에서는 안전모를 쓴 10여명의 사람이 망치질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나절 동안 수백 번의 망치질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건축용 목재에 10cm 길이의 못을 힘들여 박았다. 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대못 박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는 데는 불과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NGO 한국해비타트의 '선한 목수'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이다.

한국해비타트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사택을 고쳐주거나

새로 짓는 '선한 목수' 사업을 올해 초 시작했다. 첫 번째 사업 현장인 이날 흥민기 라이트 하우스무브먼트 대표의 연합교회인 라이트하우스서울숲, 해운대, 포항 등 교회 3곳 목회자를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해비타트 개인후원팀 채성현 매니저는 "봉사자의 작은 힘이 모여 전체 건축용 목재에 10cm 정도의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건축전문가들은 봉사자 걸을 지키면서 벽체 작업에 꼼꼼함을 더했다. 1~2m의 긴 목재를 격자로 만들 때는 정확한 못질 위치와 못의 개수를 정해 주었고, 두께를 더하기 위해 목재 2개를 나란히 붙일 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못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못질이 비뚤어질까 너무

을 담아 기프트 박스를 채웠지만, 올해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각종 잡곡을 넣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천안시 농가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학생들이 포장한 400상자는 천안시청으로 전달돼 지역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택현 백석대 대학혁신위원장은 "우리 대학이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설립 취지 아래 날씨가 추워지기 전 나눔을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째"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송기신 백석문화대 총장은 "나눔을 실천한 학생들과 도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 모두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백석대 학생인 김진성씨는 "대학에서 플로깅이나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봉사는 또 마음이 다르다"라며 "저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걱정하지 마시라. 미세하게 수평이 안 맞는 것은 조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조정한다"며 긴장을 풀어줬다. 김은경(54·여) 집사는 "시키는 대로 못질을 했을 뿐인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나님이 보살갓없는 우리를 시시는 방식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봉사자들의 땀으로 제작된 벽체는 조립 등 작업을 거쳐 울진 진북중앙교회 이복태(68) 목사의 사택으로 탄생한다. 이 목사는 8년여간 성도 9명이 출석하는 바닷가 앞 작은 교회에서 목회해 왔다. 성도 대부분 90세가 넘어 교회 수리 등 집무는 이 목사의 몫이었다. 3년 전 태풍으로 교회 지붕이 날아가갈 때가 그랬다. 교회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는 이 목사이지만 교회 옆에 딸린 사택 관리엔 신경을 쓰지 못했다. 반질반질한 교회 바닥과 달리 사택 곳곳엔 곰팡이가 피고 쥐와 벌레가 들끓었다. 이 목사는 "체대로 된 사택이 없어 후임자가 없을까 늘 걱정이 앞섰다. 감사하게도 '선한 목수' 사업에 추천되어 기뻐했다"고 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6월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울진군기독교연합회의 도움으로 지난 7~8월 선한 목수 예배를 통해 모금 활동을 펼쳤다. 새로운 사택은 내년 2월 중 완성이 된다.

##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수) 저녁 한미연합부흥가사단(Korean & American Preacher Association) 연합성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규범 목사 010-2238-3999  
 장소 : 광양 새생명교회(이강애 목사) 010-5692-5561  
 대전 주사랑연합기도원(백사방 목사) 아산은혜기도원(백사방 목사) 010-2272-9119  
 서울 위대한연합교회(임이향 목사) 010-6201-8374  
 서울 정로연합회 인제병원로 대표회장 취임식, 장소 : 남서울중앙교회 연세대학교 연신원 정기총회, 장소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관  
 연세대학교 연신원 정기총회, 장소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관  
 영남 금호신교회 부흥사역위원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양주 신희로연합교회 민족복음화중앙본부 부흥사역위원회(이사장 이능규 목사, 총재 권미선 목사, 대회장 백정훈 목사)  
 서울 강남순복음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02-6181-9282  
 주회 : Win부흥사역위원회(대표고은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정사무엘 목사)  
 성남 은총교회(노균애 목사) 010-3765-0658  
 송주반석교회(노관동 목사) 010-2391-3004  
 서울 능력선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인천 마라나타복음성서(김도보라 목사) 010-8954-8956  
 동두천 영광교회(민용기 목사) 010-2628-2002  
 충주 다메섹 기도원(원장 이승우 목사) 010-9229-9859  
 오산 아가페힐링교회(재광명 목사) 010-8928-5007  
 World Mission Worship  
 서울 누가선교회연합교회(김성만 목사) 010-6230-5530  
 서울 만나교회(이찬승 목사) 010-2191-3131  
 부산 복전교회(조남숙 목사) 010-9667-5321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중경회장단 강남삼정호텔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강남 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김진성 목사) 010-3790-2462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LA도릭(ASIANA202 AM 08:40)  
 미국(U.S.A) 미주서부지역세계기도성회(Pray for all nations)  
 준비위원장 미주서부지역 총재 김영구 목사  
 미국(U.S.A) LA 희망교회 금요연합회(사역위원장 박지영목사, 평동 미주성임교도)  
 미국(U.S.A) LA 광명교회(김영석 목사)  
 미국(U.S.A) LA Sams Community Church(Pastor.Sams)  
 미국(U.S.A) Las Vegas 불빛교회(노은철 목사)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임인철 목사)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한국(KOREA) 인천광역시 17:30 도착

www.nsca.or.kr  
 www.nscas.or.kr  
 Tel. 021411-9191  
 Fax. 021411-7770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선교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나 크게 손해 보지 않는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전쟁 이후 부상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세워지고, 병원에 원목제도가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여 달라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보고를 들었다. 우크라이나에서 30년 이상을 섬기고 있는 정\*\*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동역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고 떠났다. 지금도 방공 사이렌이 지속적으로 울리는 전장에서 사역하다 잠시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귀국한 선교사의 보고는 수없이 들려오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에 거의 묻혀져 가는 참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어 가는 지금 현재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 튀르키예, 아프카니스탄,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리비아의 홍수, 수단 내전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 문제는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인프라 파괴는 긴급 구호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지역 갈등과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제적 긴장으로 인한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교사는 현장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은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실하게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동안은 공감할 수 있지만, 지속성이 많이 약화된다. 그렇기에 선교사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한대로 객관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일방적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소수의 친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며, 서방세계의 해게모니 쟁탈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 현황과 사상자들의 숫자, 피해 상황 설명 등을 통계와 사진과 이야기들을 통하여 전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보고가 될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런 통계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설명과 선교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된다면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수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내전으로 인하여 530만명 이상 국내, 국외로 실랑민이 생겼으며,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4000명이 넘었고, 1749명이 영양실조와 홍역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히 수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우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단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라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선교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를 제공하는 학자의 역할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는 객관적인 지역연구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조선이 서방 세계에 알려진 것도 초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에 의한 소개가 많았다. 한국을 외국에 알린 중요한 최초의 영문잡지 Korean Repository는 선교사 윌링거에 의해 1892년 시작되고 자녀들을 잃은 슬픔으로 조선을 떠난 그를 대신하여 1895년에 할버트에 의해 지속되어 해외에 선교사역과 조선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재정난으로 폐간이 된 후 1901년에는 Korea Review를 발행하여 조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일조하였다. 할버트는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

가 이상의 일도 감당해야 한다.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는 현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객관적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는 사건 사고의 당사자나 현지인들이 느끼기 어려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장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쟁은 갑작스러운 난민들을 만들어냈다. 국내에 남아 전장을 지키는 남편과 아들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한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이웃 국가들과 서방 세계의 큰 짐으로 떠맡겨졌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 출국한 선교사들은 이웃 나라들에서 난민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다. 선교사들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남아있는 현지 동역자들을 통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고 있으며, 더해서 유럽의 여러 나

나인 교회들이 세워져 가도록 돕는 것은 선교사의 큰 책임이며 특권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난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현지 동역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왔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의 포화 가운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전하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인 것이다. 겨울이 다가온다.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옷들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반가운 선물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입되어온 커피믹스를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를 전하는 선교사의 말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관심과 지원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느낀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옷가지들을 모아 보내주는 것도, 부상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와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하여 대부분 선교사는 조선을 떠나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선교사들은 한국의 재건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으나 기독교학교 설립으로 근대교육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특히 의료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분야에서 민족의 장래 기틀을 놓을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뉴스거리가 몰려든다.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주위에 가득하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속히 열방에 선포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들의 고통도 함께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계실까 생각해 본다. 전쟁에서 이김으로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로움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인도적 위기 가운데 나는 어떤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의롭다고 모슬렘 침략자들을 처치하는데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놀란다. 수많은 시민이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도 선교사로서 그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고는 나약함과 무관심에 놀란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지도 않고 판단하고 동조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일상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dr.yongcho@gmail.com



디에도 없다.”는 한글 찬양 글을 남겼다. 한글의 간편성과 표음의 우수성이 조선을 발전시킬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여기고 한글의 퍼뜨리기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사제시간으로 만난 주시경이 한글 학자로 성장하도록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선교사는 한 지역의 전문가가 되어 정당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선교사가 접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그렇기에 더욱 선교사는 현장의 바른 소식을 잘 전달할 필요가 큰 것이다. 선교사는 홍보대사와 전문

라로 흠어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쟁 이후의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정교회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서 전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막상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기회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로 흠어진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유럽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것을 기대하며 디아스포라 우크라이

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구호품을 보내주는 것도, 전쟁 가운데도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중단했던 건축을 지속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정교회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서 전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막상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기회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로 흠어진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유럽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것을 기대하며 디아스포라 우크라이

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구호품을 보내주는 것도, 전쟁 가운데도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중단했던 건축을 지속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정교회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서 전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막상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기회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로 흠어진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유럽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것을 기대하며 디아스포라 우크라이



###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4)

## 루이스의 아내 조이 데이비드 맨(2)



강태평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영국 작가에게 미국 여류시인이 편지를 보낸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루이스의 형 워런 루이스는 자신의 일기에 “동생이 매력적인 미국 여성으로부터 매력적인 편지를 받았다.”라고 썼다. C. S. 루이스가 이 편지를 받고 매력을 느꼈고, 동생의 부탁으로 답장을 보냈던 워런 루이스도 좋아했다. 둘의 펜팔은 이년 반 동안 지적이고 영적인 사연을 주고 받았고, 두 사람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은 자신의 가정문제와 건강문제를 숨김없이 의논했고, 인문학적 소양과 신앙으로 준비된 루이스는 진솔한 답장을 보냈다. 둘은 맘이 열렸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자랐다. 조이는 1940년대에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특히 두 아들을 키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리해서 글을 쓰는 생활로 그는 신경 피로증에 걸렸다. 남편 빌 그레섬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들락날락했고 자주 집을 비웠다. 아주 짧은 기간에만 남편 역할을 했다. 이 기간에 조이는 소설 <우는 만(Weeping Bay)>을 포함해서 몇 권의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이 화제가 되었다. 뉴욕포스트(New York Post)기자가 그녀의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조이를 ‘소녀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는 바람에 조이는 마음고생 했고, 이어서 심계명 해설서 집필을 시작하면서 조이는 심한 황달을 앓게 되었다. 의사는 조이에게 집과 일을 떠난 절대 휴식을 명령했다. 이런 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촌 언니 리네 피어스의 편지가 왔다. 두 아이의 엄마인 리네는 심한 알콜중독자인 남편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했다. 돈도 없이 이혼하려는 리네와 두 아이를 조이가 데려왔다. 조이 집에 같이 살게 된 리네가 조이를 도와 살림을 살았다.

덕분에 조이는 쉴 수가 있게 되었다. 조이는 부모의 도움으로 1950년에 영국을 방문했다. 조이는 런던에서 방울 구해 휴식하며 <산 위에 연기: 십계명 해설집/Smoke on the Mountain: An Interpretation of the Ten Commandments>을 마무리했다. 1951년 1월에 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조이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루이스 형제들 특히, C. S. 루이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데 조이 남편은 조이의 사촌 리네와 사랑에 빠졌다는 편지를 보냈다. 조이가 오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연이었다. 회복을 위한 조이의 노력에도 남편은 조이가 집을 비워 가정이 깨졌다고 소송을 했다. 조이는 충격을 받고 루이스 초청을 받고 1951년 12월 말에 두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갔다. 런던에 자리를 잡고 거의 2년을 보내는 동안 조이는 생활

비 충당을 위해 타이핑도 하고 글도 썼다. 남편의 자녀 양육비 지원은 거의 도움이 안 되었고 루이스 도움으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C. S. 루이스와 조이의 관계는 우정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했다. 조이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 조이와 C. S. 루이스는 거의 매일 만나 사랑을 확인했다. 조이와 두 아들 그리고 루이스는 연휴를 함께 보냈다. 루이스 주변 사람은 둘의 결혼은 가정사 실이었다. 그때 조이 비자 갱신이 거절되었다. 영국 정부는 그녀의 공산주의 행적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는 서둘러 법적 결혼을 추진해 1956년 4월 23일에 둘은 법적 부부가 되었고 조이는 영국 체류가 가능했다. 루이스는 조이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윌리엄 드 주교도 조이의 이혼 경력을

문제 삼아 주례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조이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암 환자로 판명되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상태였다. 의사는 루이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조이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CS 루이스는 피터 바이드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바이드는 젊은 성공회 목사로 신유은사가 있었고 루이스와 친했다. 바이드목사는 루이스의 부탁대로 조이에게 기쁨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 루이스는 죽어가는 조이가 결혼식을 품시 원한다는 것을 알리고 병상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다. 바이드목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상 결혼식을 집례했는데, 증인은 워런 루이스와 병원에서 일하는 수녀 두 사람이었다. 의사는 조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결혼식 후 조이 건강은 급속도로 호전되었다. 그래서 루이스 부부는 아일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그리스 여행을 했다. 이 여행들은 조이와 루이스 두 사람에게 굉장한 추억이 되었다. 59세의 루이스는 청춘이 즐기는 가장 행복한 여행을 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였다. 조이의 암이 재발 되어 급속도로 악화되어 조이는 영면에 들어갔다. 루이스와 조이는 약 10년간 같이 했다. 1950년 1월에 조이

가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냈고 1960년 봄에 조이 암이 재발되었고 7월에 조이가 죽어 장례식이 열렸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세월은 10년도 안 되지만 두 사람은 각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루이스는 조이의 인생을 완성해 주었고 조이도 루이스의 인생 완성에 한몫을 감당했다. 조이가 루이스에게 받은 도움은 루이스의 책을 통해 신앙을 굳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루이스의 편지를 통해 영적 성장을 했고, 작가의 역량을 향상케 했다. 아울러 조이는 루이스 도움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에 조이에게서 루이스가 받은 도움도 어마어마했다. 힘들게 늘어 가던 나총각 루이스에게 조이와 두 아들이 가족으로 합류한 것은 큰 축복이었다. 루이스에게 조이가 얼마나 중요할까? 많은 작품에 조이가 녹아 있다. 루이스 스스로 자신의 최고 저서라고 말하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Till We have Faces>를 조이에게 바쳤다. 조이 일대기를 쓴 라일 돌셋(Lyle W. Dorsett) 박사는 <예기치 못한 기쁨/Surprised by Joy>에 Joy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헤어본 슬픔/ A Grief Observed>은 조이와 더불어 경험한 아픔을 근간으로 썼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암1:9-15) 찬 369장

두로, 에돔,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형제 계약을 배반하고 원수에게 팔아넘긴 죄였습니다.(9) 형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원수에게 넘기는 일신대매 같은 잔인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형제에 대한 무자비한 행위로 심판을 받았습니니다.(11) 도망가는 형제를 칼로 죽이는 맹렬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셋째, 탐욕을 채우려고 무자비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죄였습니다.(13)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느 무자비함으로 욕심을 채우는 죄를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방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자기 백성에 대한 형제 사랑의 결핍은 더 큰 심판이 따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 화 경건의 회복 (암2:1-8) 찬 370장

하나님은 모압과 에돔의 죄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첫째, 어떤 죄를 범했는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 정도로 의를 경멸히 여겼으며(6)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학대를 당하며(7) 부자가 경건으로 가려진 탐욕과 외식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8) 더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사람은 자연히 이웃 관계의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시킨 더러운 영(계16:13)은 우리 시대에도 일하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둘째, 어떻게 이기는가요? 경건의 회복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참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약1:27) 경건 회복을 위해 힘써시다.

## 수 죄의 보응 (암3:9-15) 찬 264장

북이스라엘의 중심,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한가요? 첫째, 세 가지 죄악 즉, 요란과 학대가 있었고(9), 약한 자를 억압하는 팽배한 강포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의가 무시되었고, 포학과 겁탈이 난무하여(10)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죄악의 뿌리인 우상숭배가 팽배하여(14) 도덕적 부패가 총만했습니다. 둘째, 그들을 대

적에게 넘겨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11) 뱀의 제단을 흠어버리려고 불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14,15) 세상 심판의 서곡인 이스라엘 심판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이뤄질 세상 심판을 암시한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계16:17-20)

## 목 하나님 사랑의 능력 (암4:1-13) 찬 369장

죄의 결과로 가뭄, 흉년, 병충해, 염병 그리고 전쟁 참화의 징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첫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여지를 남기셨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공로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됩니다.(엡 2:8-9) 둘째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

한 메시지입니다. 땅자가 아비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비로소 궁핍하여 돌아왔을 때 상상을 넘는 은혜를 받았듯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만 모든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롬5:5) 이 신신 사랑 안에서 참된 능력을 누립니다.

## 금 회개와 믿음 (암5:1-17) 찬 268장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별다른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함께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아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4-6) 이 회개만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을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골자였으며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막1:4, 15) 통회하는 마음이 신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

니다. 둘째, 믿어야 합니다.(14-15) 참 회개는 반드시 참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만이 회개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믿을 때 회개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행20:20)을 전한 바울의 복음은 이처럼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이 복된 길에 들어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 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암5:18-27) 찬 53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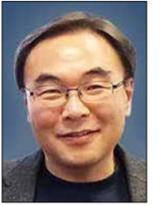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돌이켰습니다. 첫째, 공법(justice)을 원하셨습니다.(24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그르쳤습니다. 사회의 공법이 무너짐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도미노현상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1-4)이 무너지면 자연히 이웃 계명(5-10)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법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정의(righteousness)를 원하셨습니다.(24하)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는 사회 정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는 믿음의 의를 사행해야 합니다. 이 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앗스르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25-27) 믿음으로 얻은 신자의 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의를 세워갑시다.

# 기독교 교육 (38)

## 크리스마스와 기독교교육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크리스마스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돕고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축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교육은 크리스마스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신앙적인 중요성: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들의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기독교교육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영적이고 신학적인 중요성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에 따라 처녀의 몸을 통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있을 때,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둘째, 역사적인 배경: 크리스마스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 절기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데 관련된 전통과 풍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5)의 주장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지키게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린 것을 기념하는 수태고지절(受胎告知節, 3월 25일)로부터 아홉 달을 계산하여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파티를 하고, 카드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셋째, 믿음의 성숙: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포함된 내용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됩니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재정립함으로써 성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번째 위(person)이십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죄없는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고 실행하셨고,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후 40일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넷째, 그리스도 가치: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기독교교육은 그와 같은 가치들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임을 부각시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미슬도우(mistletoe - 겨우살이)는 로마시대 미슬도우 밑에서 원수들이 화해하고 우정에 금이 간 친구들이 화해했다고 해서, 그 줄기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저주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을 기리는 풍습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며,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초록색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공동체 형성: 크리스마스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교육은 성경공부와 예배와 친교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전날의 전야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 구약성경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24일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구약에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어 아침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를 갖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섯째, 상업주의 대응: 크리스마스는 고도로 상업화되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부추깁니다. 기독교교육은 크리스마스의 영적인 핵심을 그리스도들에게 상기시켜 크리스마스의 세속적인 측면을 피하고 신앙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하는 것들 중에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초,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할리(holly, 호랑가시나무)의 잎,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할리 열매,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포인세티아(Poinsettia),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종(bell), 또한 지팡이 사탕(candy cane)의 지팡이 모양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상징하고, 하얀 재료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그리고 빨간 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고, 사탕의 박하향은 사람이나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우슬초(hyssop)의 쓴맛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크리스마스 카드는 최소한 400여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1843년 콜(Henry Cole)의 제안에 따라 호슬리(John Horsley)가 그림을 그렸으므로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의 신앙적인 중요성,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요소 등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그리스도 가치를 함양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세속주의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애틀랜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6. 성경적 아버지관

최초의 범죄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구원의 역사도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파괴된 가정의 회복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실천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은 가정에서 비롯되었고, 가정문제의 본질은 아버지에게 있기에, 그 해결책을 성경적 아버지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5-16, 갈 4:6-7)라는 말씀에 비취볼 때, 예수님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길을 밟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6, 신 5:9-10)고 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하며 섬기면 딸문가정의 저주를 받지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자손천대의 축복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교육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진짜 아버지의 본, 완전한 아버지의 모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1)공급자로서 물질적, 영적, 정신적인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여호와이레의 하

아시는 바대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아버지상,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산을 받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용서하고 기쁘게 맞이 하며 잔치를 베푸는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탕자이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참된 성경적 아버지상을 선택 목자와 탕자의 아버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달한 신분(고전 2:10-11)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동,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으므로 참된 아버지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참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Headship)입니다. 아버지가 한 아버지로서,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으로,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교육자로서 가정에서 머리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가정이 바로 서며 자녀도 바로 서게 됩니다. 이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본받는 삶이 성경적 아버지관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4.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누가복음 15:11-32를 보면, 잘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남부구이양마오 종족

▲ 인구 28,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5%, 무교 5%, 복음화율 0%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마오족 중 하나로 인식되다가 1995년에야 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종족으로 인정받았다. 용의 정령을 두려워하여 섬기며, 농작물을 이롭게 하는 정령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1949년 이전, 몇몇의 선교사를 통해 신자가 생겼으나 여전히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이다.

▲ 기도제목

- 1.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 들지 못한 대부분의 남부 구이양 마오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2. 비록 소수 종족이지만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손길이 많이 일어나도록
3.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3면에서 계속)

또한,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야 예레미야애가 3:22-23을 인용하며 위로를 전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 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복음을 공유하다

베들레헨 평화와 정의 연구소의 유대인 기독교인 회원인 리사 로텐은 "이 상황에 대해 옳거나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

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텔아비브 북쪽의 해안 도시 네 타냐에 사는 로텐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미 많은 기도 모임을 조직해 온 신도 회중을 공동 지도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그들은 지도자들과 인질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은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양측의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했다. 또한 전 세계 신자들에게도 이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탄

원서를 발표했다. "선불리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말아 주세요." 로텐이 요청했다. "진정한 대화를 통해 이 난해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세요."

라말라에서 온 성지 지역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회장 무니르 카키쉬 목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양측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는 주권자이십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강조하는 찬송가와 함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자, 교회는 신도들로 가득 찼다. 가자지구에서 이주해 온 일부 가족은 남아있는 친척들을 걱정하고 있다. 한편 이

스라엘의 가자 침공으로 서안지구 봉기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봉쇄될 것을 우려한 카키쉬는 생필품을 비축하고 현지 식료품점과 협력하여 식료품 패키지를 준비했다.

앞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지리에 관한 것이었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요점을 놓치는 일이다. "어느 쪽이 지중해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땅을 차지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by Jayson Casper, CT

Advertisement for Jesus Mexico featuring the Mexican flag and text about sharing love and the gospel. Text includes: 'Jesus Mexico (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매해 겨울철 멕시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Jesus Mexico는 많은 재활원들과 여러 교도소들, 캐러밴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담요 후원금을 보내실 곳은 / 주소: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문의: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es a background image of a university building and a pond. Text includes: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목적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며 저의 정원에 나고 자라서 피고 지며 저의 마음을 따스하게, 때로는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도 했고, 행복하게도 해주며, 사랑을 나누며 위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던 각종 꽃들이 이제 계절의 끝자락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든 꽃들과 낙엽들을 정리하며 새삼 그 모든 꽃들이 저의 정원에서 나고 자라서 피고 지며 나와 함께 해주었던 시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젖어 있을 때 때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계절의 끝자락에서...

지난 9월에 한국을 다녀온 뒤 정원으로 밭걸음을 옮겨보니 한 달 여 집을 비운 사이에 돌보지 않아 끝도 없이 자라버린 잔디와 다듬어주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갖가지 꽃들, 채마밭에 널브러진 채소들을 보며 딸아이가 물었습시다.  
"아빠, 저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고 귀찮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저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왔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그렇지.. 편하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얻을 수 없었을 거다. 인생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삶의 보람이란 땀과 눈물, 그리고 나름의 헌신이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땀과 눈물과 헌신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려고 하는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것일 텐데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살후 3:7-12)."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황량한 벌판,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를 본다. 일찍이 자기 민족을 바로의 잔혹한 압제에서 구원해 보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살아왔던 모세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늙고 초라한 양치기의 모습이다.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어 지금은 지명 수배된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 모세 그는 화려한 궁중의 생활에서 쫓겨나야 했다. 모세 그는 크나큰 실패와 엄청난 좌절을 맛보며, 지금 이곳 미디안 광야에 몸을 숨기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모세는 지금 외로운 양치기가 되어 오늘도 내일도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오늘도 외로운 나그네 모세는 시

나이반도의 남부, 호렘산을 향하여 힘없는 밭걸음을 딛고 있었다. 모세는 이렇게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고독과 울분, 걱정과 좌절, 외로움과 허탈감을 안고 이렇게 떠돌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영화를 포기해버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공허하게 텅 빈 영혼으로 먼 지평선을 응시하면서 양 떼를 몰고 가고 있다. 하루는 모세가 호렘산의 어떤 계곡에 들어섰을 때 홀연히 불길에 활활 타고 있는 한 나무의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을 두 눈으로 보았다. 불길은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데, 왜 나무는 그대로 있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려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 왔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누가 여기서 나를 부르는가? 모세는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후에 다시 들린 음성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여기에서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다. "네 지팡이를 버려라." 모세는 아연실색했다.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40

여 년 동안 짚고 의지해 온 유일한 생활의 수단이었다.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며 살아온 생활의 도구였다.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한 힘의 상징이었다. 지팡이는 모세가 세상에서 믿어 온 능력이었요, 경험이었요, 지식이었요, 힘과 명예였다.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지팡이는 모세의 정욕과 혈기이자 오만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버려라" 말씀 하셨다.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며 의지하며 살아온 것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애착이 가는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 는 죽어도 버릴 수 없다고 생

각되는 것이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한때는 소중하게 여겨졌으나 실재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지팡이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마 계속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명령 하셨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놀랍게도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새로 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새로운 능력의 상징이다. 이것은 새로운 믿음과 확신과

용기이다. 이것은 새로운 꿈이요, 비전이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표징이다.  
지금 나는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가? 만일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혈기와 열정과 정욕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지팡이를 붙잡아라. 그러면 나는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출 4:2-3)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60여년 목회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강해설교집 목록

- 제 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 제 2권 아가서강해
- 제 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 제 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 제 5권 썩지않는 면류관
- 제 6권 스가랴강해설교
- 제 7권 위기를 이기는길
- 제 8권 하나님의주권과인생
- 제 9권 롯기서강해
- 제 10권 새천년에 할 일
- 제 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 제 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 제 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제 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 제 15권 하늘의 시민권
- 제 16권 진정한 평화
- 제 17권 하나님의 약속
- 제 18권 십자가의도
- 제 19권 새벽을 깨우라
- 제 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 제 21권 인생의 바른 길
- 제 22권 승리의 신앙생활
- 제 23권 선한목자와양
- 제 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 제 25권 피할수 없는 하나님
- 제 26권 빌립보서강해
- 제 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 제 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 제 29권 베드로전후서강해
- 제 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 제 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 제 32권 간추린 신학
- 제 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 제 34권 위대한 사랑
- 제 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강해
- 제 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 제 37권 경건한 신앙생활
- 제 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 제 39권 그리스도의 승리
- 제 40권 갑절의 영광
- 제 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 제 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9권에서 발췌한  
"크리스마스 설교"

본문(Scripture)	마태복음(Matthew) 1:18-23
제목(Topic)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The Birth of Jesus Christ)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과정 ] [ Process of Jesus Christ's Birth ]
(1) 성령 잉태로 탄생하심	18-20
(Was conceived and born through the Holy Spirit)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	
(Faith of Mary and Joseph)	
(A) 마리아는 믿고 결심함	눅(Lk) 1:35,38
(Mary believed and was determined)	
(B) 요셉은 말씀을 순종함	마(Mt) 1:24,25
(Joseph obeyed the commandment)	
(2) 이름을 예수라 칭하심	21
(Called the name Jesus)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	
(Method of coming to save His people)	
(A) 자기 백성을 속죄하심	벧전(1Pe) 1:18,19
(Became ransom for His people)	
(B) 자기 백성을 믿게 하심	행(Ac) 13:48
(Make His people believe)	
(3) 임마누엘로 탄생하심	22, 23
(Was born as Immanuel)	
(우리와 함께 계신 방법)	
(Method of being with us)	
(A) 육신으로 세상에 계심	요(Jn) 1:14
(Was in the world being in flesh)	
(B)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심	마(Mt) 28:20
(Will be with us to the end of the age)	

마태복음 1:18-23

-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신청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